

농림축산식품부 동물 관련 사업 예산 분석 리포트

# 대한민국 동물복지 사업과 예산 현주소



농림축산식품부 동물 관련 사업 예산 분석 리포트

# 대한민국 동물복지 사업과 예산 현주소



## I 들어가기

## II 회계/기금별 3개년 사업분석

1.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	10
2.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	14
3. 살처분보상금 사업	18
4. 반려동물산업육성 사업	22
5. 가축방역대응지원 사업	25
6. 가축사체처리지원 사업	27
7. 가축백신지원 사업	30
8. 가축방역 사업	33
9. 동물복지축산인증제활성화 사업	36
10.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 사업	39
11. 축산물수급관리 사업	42
12. 말산업육성지원/ 말산업 육성지원(융자) 사업	46
13. 가축위생방역지원 사업	50
14. 원유소비활성화 사업	52
15. 축사시설현대화(융자) / 축사시설현대화	55

## III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사업 예산 분석 개요

말 복지 전무한 말산업육성지원 사업	60
살처분된 동물에 대한 관리 강화	62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책	63
국민 인식 못 따라가는 동물복지농장 지원	65
농장동물 전염병 최선의 대응은 '예방'!	67
살처분은 정답이 아니다	69
국제경쟁력 확보하려면 원유소비 대신 비건소비로 전환해야	71
동물복지농장에 시설지원 비율 50% 이상 편성하라	73
무용론 고조되는 정부의 우유급식 대폭 감액하라	75
예의주시해야 할 반려동물 인프라의 시작	77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 확대로 유기·유실견 발생 방지	78

## IV 제언 - 동물복지를 위한 나라예산, 이렇게 써야 한다

80

# I 들어가기



# II 회계/기금별 3개년 사업분석

동물을 위한 국가 예산을 수립하는 기관은 정부, 심의하는 기관은 국회이지만, 재원을 실제 부담하는 것은 시민들이다. 시민들이 세금을 내며 요구하는 것들은 제각각이겠지만 사회 구성원의 본질적인 추구는 바로 생명에 대한 보다 강화된 보호제도일 것이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과도한 육식주의로 과밀하게 사육되는 농장동물, 인간의 관점에서 유해하단 이유로 사살되는 야생동물, 매년 유기동물보호소에 10만 마리 이상 들어오는 유기·유실동물 등 각 층위에서 발생하는 동물의 실패는 여전하며, 그 개선 속도가 느리다. 본 보고서는 동물 착취와 이용을 답습하는 정책과 이를 근거로 편성된 예산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제언함으로써 국가의 동물정책을 올바르게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전체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증가 추세. 2021년 예산은 16조 2,856억원, 2022년 예산은 16조 8,767억 원, 2023년 예산은 17조 3,574억 원이고, 2024년 예산 및 기금은 18조 3,3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하였다.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국가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로서의 역할이기도 하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중 동물운동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문제와 연관된 사업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사업들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살처분보상금’, ‘반려동물산업육성’, ‘가축방역대응지원’, ‘가축사체처리지원’, ‘가축백신지원’, ‘가축방역’, ‘동물복지축산인증제활성화’ 등 9개 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인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 사업, △축산발전기금 사업인 ‘축산물수급관리’, ‘말산업육성지원/말산업육성지원(융자)’, ‘가축위생방역지원’ 등 4개 사업,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사업인 ‘원유소비활성화’, ‘축사시설현대화’ 등 2개 사업을 포함해 총 15개 사업을 분석하였다.

동물 관련 사업을 주로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는데, 동물을 이용하는 축산업이 한 축, 반려동물 산업이 한 축이다.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의 경우 `21년도 수입은 1조 588억 원, `22년도 수입은 1조 1,154억 원에 이른다.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관련 사업 예산은 축산업진흥 프로그램 하에 편성되어 `21년도에 52억 원, `22년도 110억 원, `23년도 119억 원 정도에 이른다. 축산업 사업의 규모는 압도적인 수준인데 비해, 반려동물 관련 사업의 예산은 소규모이며 매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무엇보다 기후위기 시대를 역행하는 덩치 큰 축산업 사업들이 진행되고 이에 따라 상당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정부의 과감한 정책 전환과 예산 변경이 개편이 요구된다.

본 분석은 정부가 제출한 확정예산사업설명서를 기반으로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진행된 상기 명시된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고 동물 복지 확보 측면에서 사업의 실효성 및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시사점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기존 선택한 사업들의 2024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자료도 후첨한다.



# 1.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

(단위: 백만원)

	2021					2022(22.7월 말)							2023 예산 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50	350	350 [305]	-	-	333	333	333	333 [188]	333	333 [188]	-	-	333
· 유해야생동물포획 시설지원	350	350	350 [305]	-	-	333	333	333	333 [188]	333	333 [188]	-	-	333
○ 비목별 분류(합계)	350	350	350 [305]	-	-	333	333	333	333 [188]	333	333 [188]	-	-	333
- 자치단체자본보 조(330-03)	350	350	350 [305]	-	-	333	333	333	333 [188]	333	333 [188]	-	-	333
○ 가능비목별 분류(합계)	350	350	350 [305]	-	-	333	333	333	333 [188]	333	333 [188]	-	-	333
· 유해야생동물포획 시설지원	350	350	350 [305]	-	-	333	333	333	333 [188]	333	333 [188]	-	-	333
- 자치단체자본보 조(330-03)	350	350	350 [305]	-	-	333	333	333	333 [188]	333	333 [188]	-	-	333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본예산 확정예산 기준)

## 사업 개요

- 유해야생동물포획지원 사업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에 근거하여 농림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2019년에 신규 편성된 국고보조율 40%의 계속 사업임
  - 해당 사업은 2019년 신설 당시 △유해야생동물포획지원(재량) 이라는 이름으로 신설되었으며 2020년부터 △유해야생동물포획지원으로 변경되었음
- 2019년 신설 후 현재까지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 단일 내역사업으로 시행 중이며 총 사업 기간은 2019년~2023년임
- 해당 사업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유해야생동물)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 및 피해액 최소화를 목적으로 함

- 2016년 야생 멧돼지 피해저감 대책 사회장관회의 보고를 통해 문제가 제기 됨, 이후 2017년 환경부의 농작물 피해방지 협조요청과 동년 국정감사에서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방지 관련대책 강화 필요성 지적 및 대책 추진 요구에 따라 농식품부-환경부 정책협의회를 거쳐 편성된 사업임

## 사업 내용 및 효과

-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 사업은 지자체 보조율 40%로 2019~2022년 12월까지의 실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음
  - 부처 집행률은 매년 100%인 반면 자치단체의 실 집행률은 매년 하락세이고, 불용액이 매년 상승세로 꾸준히 발생함
  - 불용액이 매년 꾸준히 상승세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자체평가 없음

<표 1>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9	300	300	300	300	-	300	280	4	16	93.3
2020	300	300	300	300	4	304	275	-	29	91.7
2021	350	350	350	350	-	350	305	-	45	87.1
2022. 7월 기준	333	333	333	333	-	333	188	-	-	56.5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본예산 확정예산 기준)

-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 성과지표를 보면 '19년도 529마리, '20년도 298마리, '21년도 361마리 등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된 포획시설에 포획된 야생동물 마릿수만 제시되어 있음.(표 2 참고) 2023년 사업 목표치 산출 근거 또한 전년도 동 사업을 통해 지원된 포획시설에 포획된 야생동물 마릿수에 국한되어 있음
  - 하지만 유해 야생동물별 서식지 분포 및 개체군 규모와 작물별 피해 규모가 피해지역별로 모두 다를 것임. 이에 따라 연도별 피해지역의 야생동물 개체군 상황과 작물 상황을 근거로 한 목표치가 설정될 필요 있음

**<표 2> 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분	'19	'20	'21	'22	'23	'23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유해야생동물 포획 실적(마리)	목표	450	450	530	353	323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된 포획트랩에 포획된 야생동물 마릿수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된 포획트랩에 포획된 야생동물 마릿수	유해야생동물 포획수 조사 (지자체)
	실적	529	298	361	-	-			
	달성도	117	66.2	68.1	-	-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본예산 확정예산 기준)

물 서식지의 충돌, 산림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와 먹이 수급 감소 등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여 복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조사 및 연구를 수반하여 유해 야생동물 구제의 필요성과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됨

## 시사점 및 개선 방향

- 상기한 바와 같이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실적에만 국한되어 있음
  - 사업 목표치 산출 근거는 단순히 전년도 포획 마릿수가 아닌 피해지역별 유해 야생동물 개체군의 상황과 작물 상황을 반영한 목표치가 제시되어야 함
  - 해당 사업은 본래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감소하는 것이 목적임. 따라서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야생동물의 살처분 외 사업 시행에 따른 농작물 피해 규모의 저감 추이 등 사업의 본 목적에 부합한 성과지표를 추가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사업의 향후 간접기대효과로 명시된 전기 울타리 감전 등 기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정책의 부작용 해소는 일방적, 단편적 측면이 있음
  - 포획 트랩을 통해 포획된 유해 야생동물의 경우 포획 직후 살처분을 전제로 함. 그러나 전기 울타리를 통한 피해 예방책은 야생동물을 사살하지 않고 농작물 피해방지를 기대할 수 있음. 또한, 전기 울타리 감전사고는 안전 기준에 부합한 전기 울타리 사용과 안전 교육 시행 등으로 방지할 수 있음. (2022년 옥천 전기 울타리 부너 감전사 사고는 규격 외의 임의 설치 전기 울타리로 인한 사고로 사용 전압, 규격 전선 등 적법한 기준을 준수한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sup>1</sup> 따라서 사람에 대한 전기 울타리 감전 사고 우려만으로 포획 트랩을 이용한 사업 방식을 전기 울타리를 이용한 방식보다 개선된 방식으로 평가할 수 없음
- 해당 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으로 제시하는 적정수준 개체수 조절로 생태계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본 사업을 통해 포획되는 야생동물의 종류가 생태계 균형에 위해를 일으키는 유해야생동물로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함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 균형 및 농작물 피해가 회복세로 전환되는 포획 필요 개체수의 추정치 데이터 및 연구를 통한 추진 방향이 설정되어야 함
  - 농작물 피해를 일으키는 야생동물이 발생하는 이유는 개체수 과밀에만 국한되지 않음. 농가와 야생동

1 전기울타리 임의 설치로 감전사고 잦아...시공·감독 강화해야”, 문화일보, 2022.10.19., 2023.05.접속,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01901031805000001>

## 2.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

(단위: 백만원)

	2021					2022('22.7월말)							2023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불용 예산액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5,277	5,277	5,277 (4,927)	-	-	11,020	11,020	11,020	8,175 [3,374]	11,020	8,175 [3,374]	-	-	-	11,928
· 교육 홍보	2,225	2,225	2,225 (2,053)	-	-	2,111	2,111	2,111	1,478 [670]	2,111	1,478 [670]	-	-	-	2,618
· 유실·유기동물 관리 수준개선지원	1,312	1,312	1,312 (1,173)	-	-	1,589	1,589	1,589	1,292 [702]	1,589	1,292 [702]	-	-	-	1,650
·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1,140	1,140	1,140 (1,109)	-	-	3,420	3,420	3,420	3,420 [1,453]	3,420	3,420 [1,453]	-	-	-	3,420
· 동물보호·복지실태 조사정례화	600	600	600 (592)	-	-	600	600	600	600 [208]	600	600 [208]	-	-	-	700
·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지원	-	-	-	-	-	1,500	1,500	1,500	1,125 [326]	1,500	1,125 [326]	-	-	-	1,560
·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	-	-	-	-	720	720	720	260 [20]	720	260 [20]	-	-	-	720
·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유자)	-	-	-	-	-	1,080	1,080	1,080	1,080 [0]	1,080	1,080 [0]	-	-	-	1,080
·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지원(신규)	-	-	-	-	-	-	-	-	-	-	-	-	-	-	180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본예산 확정예산 기준)

###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에 근거한 계속 성격의 사업
- 보조와 융자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국고 보조율은 20~100%, 융자율은 30%임
- 사업시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농림축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며, 사업 수혜자는 일반 국민
- 2008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최근 5년간 투입된 예산은 `19년 4,109백만 원, `20년 4,566백만 원, `21년 5,277백만 원, `22년 11,020백만 원, `23년 예산(안)은 11,928백만 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주요 사업은 △교육 홍보,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정례화, △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개선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지원,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

선지원,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음. 교육과 홍보를 통한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제고,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동물복지 정책 마련 등을 통한 반려동물 전반의 사회 문화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음

### 사업 내용 및 효과

-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 중 △교육 홍보,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정례화는 100% 지원이며,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지원 사업은 지자체 보조율 30%으로 이루어져 있음.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지원 사업은 보조율 20% 사업임.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사업은 지자체 보조율 20%, 융자 30% 사업임
- 사업의 세부내역을 비교하였을 때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과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사업만 전년도 대비 동일한 수준이며 신설된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지원 사업을 제외하면 모두 증액됨
-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유실·유기동물 보호 관리수준 제고 및 동물 입양 활성화,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동물복지 정책 마련 등을 기대함
- 2019년 기준 불용액은 크게 감소하였고 20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우수(93.9점), 21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보통(83.7점) 기록

<표 3> 출연 보조사업 등 실적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9	4,109	4,109	4,109	4,109	3,196	7,305	3,644	95	3,566	88.7
2020	4,566	4,566	4,566	4,566	95	4,661	4,497	19	145	98.5
2021	5,277	5,277	5,277	5,277	19	5,296	4,943	179	174	93.7
2022. 7월 기준	11,020	11,020	8,175	8,175	179	8,354	3,374	-	-	40.3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본예산 확정예산 기준)

- 성과지표로 반려동물 등록 마리수와 유실·유기동물 분양, 기증 마리수(23년부터 유실·유기동물 분양 기증률로 변경)로 제시되어 있음
- 반려동물 등록 마리수 및 유실·유기동물 분양, 기증 마리수의 목표와 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며 달성도 또한 2020년을 제외하고 100%대를 유지하고 있음

- 길고양이 및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의 성과지표로 중성화수술 지원 개체수,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 및 유기동물 입양센터 설치지원 사업의 성과지표로 시설 개보수 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표 4> 사업 효과

성 과 지 표	구 분	'19	'20	'21	'22	'23	'23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 반려동물 등록마릿수(천마리)	목표	1,389	2,210	2,318	3,143	3,457	22년 대비 동물 등록 마릿수 10% 증가	당해연도 지자체에 등록한 동물마릿수의 합 (누적)	동물보호관리시 스템(APMS)자 료활용/농림축 산검역본부
	실적	2,111	2,322	2,827	-	-			
	달성도	152.0	105.1	122	-	-			
② 유실·유기동물 분양, 기증 마릿수(마리) (23년부터 유실· 유기동물 분양, 기증률로 변경)	목표	38,294	43,818	43,064	45,461	43.5%	21년 분양·기증비율인 37.9%에 '18~'21년 평균증가율 2.8% 감안	지자체 지정 동물보호센터에 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 중 분양 또는 기증된 유기동물 수	동물보호관리시 스템(APMS)자 료활용/농림축 산검역본부
	실적	40,052	40,105	44,847	-	-			
	달성도	104.6	91.5	104.2	-	-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본예산 확정예산 기준)

- 최근 3년간 사업 달성도가 100%를 초과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조율 단가 인상 필요가 부처에서 건의됨. 지방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길고양이 및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지원 사업의 국고 보조율 20%에서 30%로 인상하고 신규 사업 예산 반영 필요성 또한 강조됨

## 시사점 및 개선 방향

-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
  - 동물보호 및 복지에 저해가 되는 동물 판매업(경매장) 및 동물 학대 실태조사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체계적인 현장실태조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더 나아가 동물 판매업의 사각지대와 학대 방지에 대한 방지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개식용 종식에 대한 국정과제가 남아있음에 따라 사회적 합의 및 이행 로드맵과 그에 따른 예산 또한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됨
  - 현재 15.6억 원으로 책정된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지원 사업의 예산으로는 약 18,750마리의 중성화수술을 지원할 수 있으나 사업대상이 375,000여 마리인 점을 감안하면 5%에 불과함. 유기견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을 지목하는 사례가 있음에 따라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지원 예산을 증액해야 함<sup>2</sup>

2 “중성화 수술로 제주 유기견 3년새 2천마리 줄어”, 뉴스1, 2023.04.06., 2023.05 접속  
<https://www.news1.kr/articles/5006836>

### 3. 살처분보상금 사업

(단위: 백만원)

	2021					2022('22.7월 말)							2023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9,930	59,930	195,344 [179,937]	0	0	55,795	55,795	55,795	55,795	55,795	55,795	0	0	50,215
· 살처분보상금	59,930	59,930	195,344 [179,937]	0	0	55,795	55,795	55,795	55,795	55,795	55,795	0	0	50,215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 사업 개요

- 해당 사업은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 및 오염 물건의 살처분(폐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보상금 등) 및 제48조의2(폐업 등의 지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가축의 도살 등)를 법령상 근거로 함
  - 주요 사업인 살처분 보상금은 1982년부터 매년 소요예산을 지원해왔으며 2009년부터 기립불능소 폐기보상금 지급을, 2020년부터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폐업지원을 추진해 왔음. 최근 4년간 예산 내역을 보면 `20년 75,000백만 원, `21년 59,930백만 원, `22년 55,795백만 원, `23년 예산(안)은 50,215백만 원으로 점차 감소 추세임
  - 지원은 보조 형태로 국고 보조율 70~100%의 계속 사업임. 기립불능소 폐기보상금은 국비 100% 보조이나, 살처분 보상금과 폐업지원은 각각 80%, 70% 국비와 20%, 30% 지방비 매칭 사업임. 시행 주체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며 수혜자는 축산농가임
- `23년 예산안은 △살처분 보상금 49,144백만 원, △기립불능소 폐기보상금 650백만 원, △폐업 지원금 421백만 원으로 이뤄져 있음. 전체 예산의 98%를 차지하는 살처분 보상금은 브루셀라병, 결핵병 등 가축 질병 발생과 가축 마릿수를 산출 근거로 책정되었음

#### 사업 내용 및 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가축 질병 발생에 따라 예비비, 타 사업 예산을 살처분 보상금으로 확보 및 집행해 왔으며, 투입된 사업비의 연도별 차이가 큼

<표 5>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9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서 327억 원을 이용하였으며 예비비 394억 원을 살처분 보상금으로 확보 및 집행
2020	우박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살처분 보상금에서 재해대책비로 135억 원 이용하였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가축백신지원에서 17억 원을 살처분 보상금으로 내역변경,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농업자금이차보전에서 8억6천만 원을 살처분 보상금으로 예산 확보 및 집행
2021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발생으로 예비비 834억 원, 재해대책비에서 350억 원, 가축사체처리지원에서 30억 원, 농협사업구조개편지원에서 18.9억 원,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25억 원, 스마트팜실증단지에서 12.4억 원, 농업자금이차보전에서 71억 원,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에서 13억 원을 살처분 보상금으로 확보 및 집행
2022	결핵, 브루셀라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집행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 2019년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예비비 394억 원을, 2021년에는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 발생으로 예비비 834억 원을 살처분 보상금으로 확보 및 집행함
- 2019년에는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에서 327억 원을 이용하였고, 2020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가축백신지원 사업에서 17억 원을 내역변경했고, AI 발생으로 농업자금이차보전에서 8억6천만 원을 확보하여 집행함. 2021년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 발생으로 재해대책비에서 350억 원, 가축사체처리지원에서 30억 원 등 타 사업에서 총 520.3억 원을 살처분 보상금으로 이용함

<표 6> `2018년~2023년 연도별 가축전염병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재원	구제역	AI	ASF	브루셀라 등
2018년	국비	2,998	48,768	-	27,850
	지방비	750	12,192	-	6,963
2019년	국비	8,384	216	64,881	39,768
	지방비	2,096	54	16,220	9,942
2020년	국비	-	1,670	44,261	37,039
	지방비	-	418	11,065	9,260
2021년	국비	-	128,833	3,428	40,197
	지방비	-	32,208	857	10,049
2022년	국비	-	35,257	5,265	41,179
	지방비	-	8,814	1,316	10,295
2023.10월	국비	953	30,426	24,674	18,882
	지방비	238	7,607	6,169	4,721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 최근 5년간 가축전염병에 따른 실제 살처분 보상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99,521백만 원, 2019년 141,561백만 원, 2020년 103,713백만 원, 2021년 215,572백만 원, 2022년 102,126백만 원으로 가축 질병 확산과 살처분 정책에 따라 연도별 상당한 차이를 보임

<표 7> `19~`23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9	'20	'21	'22	'23	'23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주요가축전염병 발생률 (단위: %)	목표	0.38	0.38	0.38	0.34	0.32	연도별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동향 감안	14종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건수의 합 / 사육농가수 ×100	시도별 발생보고 자료집계
	실적	0.30	0.36	0.26	-	-			
	달성도	121.1	105	146.2	-	-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 성과지표로 '주요가축전염병 발생률'을 사용하나, 살처분 보상금 사업만이 가축전염병 확산의 유일한 방지책이 아닌바 추가적인 성과지표 필요함
- 해당 사업은 살처분 농가에 대한 합리적 피해 보상과 농가 자율방역을 유도해 가축 질병 발생률 저감을 기대함

## 시사점 및 개선 방향

- 과도한 살처분 집행과 보상에서 벗어나 가축전염병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 배분 필요
  - 최근 5년간 투입된 살처분 보상금 사업비는 해마다 두 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감소하는 등 가축 질병 발생과 확산에 따른 차이가 크며 예측하기 어려움. 불용 최소화를 위해 예산 역시 적정 편성을 해야 하며 지급 규모 증가 시에만 현재와 같이 이전용, 예비비 등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는 일은 불가피할 것임
  - 현재 정부의 가축전염병 방역 정책은 살처분을 중심으로 이뤄져 상대적으로 일상적인 가축방역 대응을 위한 예산 배분이 부족함. 구제역 사태가 발생했던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살처분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에만 1조 8천억 원이 쓰였고, 2014~2015년 AI 살처분의 경우 보상금이 1772억 원, 소독 등에 쓰인 돈은 564억 원이었음. 정밀한 역학조사 없이 과도하게 추진된 예방적 살처분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2019년 ASF 발생초기 김포, 파주, 연천의 행정구역 내 모든 돼지를 예방적으로 살처분하였고 2020~2021년 AI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3km 고수하며 지급된 보상금도 상당함. 살처분 일변도의 방역에서 벗어나 소독과 백신 지원 등 예산을 늘리고 과학적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연구비 예산 확보도 필수적임<sup>3</sup>
- 「가축전염병 예방법」 규정에 근거한 살처분은 살처분 결정 및 집행상의 문제, 살처분 참여자에게 미치는 피해의 심각성,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 2차 환경오염문제, 방역을 위한 예산 및 자원 배분 등에서 왜곡 발생, 농촌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영향 등이 문제로 제기됨.<sup>4</sup> 이러한 살처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성과지표로 가축전염병 재발생 농가 수를 추가해 방역 취약농가를 파악하고 관리해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며 살처분 보상금을 줄여나가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1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신돈 스톨 사육 제한,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 사육 방식 전환을 위한 로드맵 마련 등 추진 내용을 `20~`24 동물복지 종합계획으로 발표함. 공장식 관행 축산 내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환경 개선도 필요하나, 바이러스 변이 가능성이나 가축 질병 발생 시 대규모 살처분 한계는 여전히 동물복지농장으로 시설전환을 위한 지원과 홍보 등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

3 “방역사 1명당 가축 91만 마리…무너지는 살처분 ‘최후의 방어선’”, 한겨레, 2019.02.23., 2023.05 접속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3281.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3281.html)

4 함태성, 2019, 우리나라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 살처분 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2(1), 525-553

# 4. 반려동물산업육성 사업

(단위: 백만원)

	2021					2022('22.7월말)							2023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00
· 반려동물행동지도사자격운영														400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 사업 개요

- 반려동물산업육성 사업은 「동물보호법」 제31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에 근거하여 농림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2023년 신규 편성된 국고 보조율 100%의 신규 사업임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를 도입함에 따라 자격시험의 실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함임
  - 해당 사업은 편성 당시 사업의 근거 법령이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었으나 분석 시점에서 「동물보호법」으로 변경됨
- 반려동물행동지도사자격 운영 단일 내역 사업으로 예산안 산출 내역은 [표 2]와 같음
  - 당초 사업 예산으로 800,000,000원이 요구되었으나 확정예산에서 400,000,000원으로 조정됨
- 해당 사업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도입에 따른 자격시험 실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비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표 8> '23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23년 예산안	
예산	세부산출내역
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경상보조(320-01): 400백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시험 관리: 180백만 원(사업계획 수립, 시험운영 관리, 체계개발, 인건비 등)</li> <li>· 자격시험위원회 운영: 20백만 원(위원회 구성, 출제위원 구성, 시험문제출제 등)</li> <li>· 시스템 개발 구축 운영비: 100백만 원(문제은행 시스템·통계프로그램 개발 등)</li> <li>· 관리기관 운영: 100백만 원(관리기관 인건비, 재료비, 기타 운영비 등)</li> </ul> </li> </ul>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 사업 내용 및 효과

- 반려동물산업육성 사업은 '22. 4. 5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신규 제정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에 대응하여 신규 편성됨
  - 사업시행 방법은 보조로 시행, 사업시행 주체는 현재 미정이나 위탁 방식으로 집행될 예정이며 사업 수혜자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응시자임
- 해당 사업에 대한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은 [표 3]과 같음

<표 9>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1	'22	'23	'24	'25	'26
'21~'25						
'22~'26		500	500	500	500	500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 시사점 및 개선 방향

- 법 개정에 따른 신규 제도의 예산 증액 필요성
  - 2021년 8월부터 시행된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에 근거한 동물보건사 제도의 경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및 자격시험 운영에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음
  - 본 사업의 경우 당초 요구 예산안은 8억 원이었으나 4억 원으로 조정됨. 신규 제도의 안착 필요성을 고려하여 예산 증액 필요

## 5. 가축방역대응지원 사업

(단위: 백만원)

	2021					2022('22.7월말)							2023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0,482	112,049	111,959 [96,729]	-	90	107,718	107,702	107,702	87,965 [49,557]	107,702	87,965 [49,557]	-	-	99,463
· 긴급방역비	4,000	5,208	5,127 [5,127]	-	81	4,000	4,000	4,000	1,321 [1,321]	4,000	1,321 [1,321]	-	-	4,000
· 공중방역수의사 직 무교육 등	61	36	27 [27]	-	9	61	45	45	45 [45]	45	45 [45]	-	-	61
· 수의사 연수교육 등	2,168	10,602	10,602 [10,442]	-	-	1,998	1,998	1,998	1,579 [900]	1,998	1,579 [900]	-	-	3,458
· 예방약품 등 지원	75,936	78,518	78,518 [73,734]	-	-	79,736	79,736	79,736	66,495 [40,069]	79,736	66,495 [40,069]	-	-	77,124
· 방역장비 등 지원	18,317	17,685	17,685 [7,399]	-	-	16,877	16,877	16,877	13,479 [2,515]	16,877	13,479 [2,515]	-	-	9,785
· 가축전염병 대응 소득 지원 임차지원	-	-	-	-	-	5,046	5,046	5,046	5,046 [4,707]	5,046	5,046 [4,707]	-	-	5,035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방역 장비, 검진약품 등을 지원하고 공중방역 수의사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해 가축 방역 업무의 적정한 추진을 도모해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는 2019년 130,891백만 원, 2020년 109,864백만 원, 2021년 100,482백만 원, 2022년 107,702백만 원, 2023년 98,613백만 원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 지원 형태는 직접 및 보조이며 국고 보조율 25~100%의 계속 사업임. 시행 주체는 시·도(시·군·구 포함), 대한수의사회, 농협,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이고 사업 수혜자는 축산농가, 수의사 및 공중방역 수의사 등임
  - `23년 예산 항목은 △긴급 방역비, △공중방역 수의사 직무교육 등, △수의사 연수교육 등, △예방약품 등 지원, △방역 장비 등 지원, △가축전염병 대응 소득 지원 임차지원으로 이뤄져 있음

## 사업 내용 및 효과

- `19~`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는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률로 설정돼 있음
  - 2019~2021년 매해 목표를 120% 이상 초과 달성하고 있음
  - 성과지표 이외 수의사 연수교육 수료자 수, 소독시설 신축 개소, 가축 질병 모니터링 검사수 등을 실적으로 제시해 연도별 큰 차이 없는 예산 사용 내역 확인됨

성과지표	구분	'19	'20	'21	'22	'23	'23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률 (단위: %) (하향지표)	목표	0.38	0.35	0.34	0.34	0.32	연도별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건수의 합 / 사육농가수 × 100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건수의 합 / 사육농가수) × 100	국가가축방역 통합관리시스템 (KAHIS)
	실적	0.30	0.24	0.26	-	-			
	달성도	121	131	123	-	-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 `23년도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예방 약품 등 지원'으로 총예산의 약 80%에 달함. 예방 약품 지원과 가축 질병 검사실 운영비 등을 지원해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는 데 집중되고 있음
  - 예방 및 검진 약품 등 구입비만 `23년 총예산의 48.6%를 차지함
  - 살처분 참여자 심층 치료비 지원은 20명을 대상으로 하며 1백만 원에 불과함

## 시사점 및 개선 방향

- 구제역 백신 접종은 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며 결과적으로 대규모 살처분을 막아 시기에 따라 정확한 접종이 요구됨. 고병원성 AI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축소하면서 동물과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백신 도입이 시급히 이뤄지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축매몰(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277명 중 83.7%가 살처분 작업의 노동 강도가 힘들거나 매우 힘든 수준이라고 답했으며, 살처분 이후 작업과 관련된 정신적, 육체적 치료나 상담이 있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70.2%였음.<sup>5</sup> 수천만 마리 동물이 살처분 당하는 현장에서 함께 고통받는 일용직 노동자의 심리 치료를 위해 현재 20명 지원에 해당하는 예산은 큰 폭으로 늘릴 필요가 있으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촘촘히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5 “가축매몰(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02.26

# 6. 가축사체처리지원 사업

(단위: 백만원)

	2021					2022('22.7월 말)							2023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이월액 계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예산	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989	6,446	6,446 [2,331]	-	-	13,955	8,355	8,355	5,769 [1,166]	8,355	5,769 [1,166]	-	-	9,769
·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8,299	3,918	3,918 [1,404]	-	-	7,725	4,195	4,195	3,207 [618]	4,195	3,207 [618]	-	-	4,855
· 살처분가축처리 시설·장비	6,690	2,303	2,303 [702]	-	-	6,230	4,160	4,160	2,562 [548]	4,160	2,562 [548]	-	-	4,914
· 폐사가축관리 시스템 구축	-	225	225 [225]	-	-	-	-	-	-	-	-	-	-	-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본예산 확정예산 기준)

##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매몰지 환경관리 강화, 가축전염병 전파방지 및 환경오염 우려 매몰지의 발굴 복원 비용을 지원하고, 살처분가축 처리시설 및 장비 등 지원 명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4조(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4조의2(주변 환경조사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등에 근거한 계속 성격의 사업
- 2020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최근 4년간 투입된 사업비는 `20년 19,096백만 원, `21년 14,989백만 원, `22년 13,955백만 원, `23년 예산(안)은 9,769백만 원으로 감소 추세임
- 보조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국고 보조율은 30~40%임
- 사업시행 주체는 지자체, 사업 수혜자는 지자체 및 민간업체/생산자단체임
- 주요 사업은 △가축매몰지 관리 소멸, △살처분가축처리 시설·장비, △폐사가축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이루어져 있음

## 사업 내용 및 효과

-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 살처분가축처리 시설·정비 지원 크게 2개 사업으로 이루어짐
-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와 발굴·소멸을 추진하여 매몰지로 인한 가축전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환경 관리 개선을 기대함
-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화를 기대함
- 2020년~2022년까지의 실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음
  - 실집행률이 2020년에는 19.1%였으나 '21년 33.5%, '22년 38.7%로 늘었으나 여전히 40%도 못 미치고 있음
  - 해당 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가축매몰지 관리 소멸 사업 집행저조 및 수요 과다예측, 추경 편성 전 사전 조사 철저 및 시급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편성되도록 유효 필요 하다고 '21. 예결위가 제기함
  - 동물자원순환센터 설치지원 사업의 수요부족, 원활하지 않은 추진상황을 고려 시 사업의 효과성에 문 제가 있으므로 신규사업 추진 시 사업수요 파악 후 계획 수립 필요할 것으로 '21. 상임위가 제기함
  -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실 집행 개선을 위한 사업지침 개선(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매몰지 관리 소멸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하고, 살처분 가축처리 시설 장비 지원대상 확대로 실 집행을 제고 도 모), 다음 연도 지자체 사업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안 가내시('21.9월) 및 가축 매몰지 관리 소멸 등 추경안 미편성('21년)

<표 11>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9	-	-	-	-	-	-	-	-	-	-
2020	15,896	18,296	14,299	14,299	-	14,299	3,499	6,504	4,296	19.1
2021	14,989	14,989	6,221	6,221	6,504	12,725	5,016	3,383	4,326	33.5
2022	13,955	8,355	5,933	5,933	3,948	9,431	3,651	-	-	38.7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 성과지표로 매몰지 발굴·소멸률을 제시하고 있음.
-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으로 2020년도 폐사축관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실시 및 2021년도 폐사축관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완료 및 잔금 지급을 제시함.

<표 12> '19~'23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9	'20	'21	'22	'23	'23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매몰지 발굴·소멸률 (단위: %)	목표	-	20	95 (하향)	95 (하향)	95 (하향)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및 매몰지 조성 등 고려	[(전년도 발굴가능 매몰지 개수 - 당해년도 발굴·소멸 매몰지 개수)/ 전년도 발굴·소멸 가능 매몰지 개수]x100	자치단체 사업실적 보고서
	실적	-	131	94.5	-	-			
	달성도	-	658	100.5	-	-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 시사점 및 개선 방향

- 수년 전 매몰됐던 가축 사체가 폭우 등으로 들어나는 경우 다수 발생하면서 침출수 우려도 큼. 매몰지 발굴 및 소멸률은 지속해서 관리 필요
-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을 보면 지자체는 처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렌더링 과정 모니터링 부실, 살처분 가축 불법 매립 의혹 등 여러 문제점 지적됨<sup>6</sup>
- 살처분 가축처리 시설 장비 확대 (고정식 렌더링 기계 설치 지원), 매몰지 관리 소멸 절차 및 방법 구체화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 확보 필요

6 “[단독] 살처분 가축 무료퇴비로 속여 불법 매립 의혹,,,경찰 수사중”, 한겨레, 2020.10.29., 2023.05 접속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2491.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2491.html)

# 7. 가축백신지원 사업

(단위: 백만원)

	2021					2022('22.7월말)					2023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56,445	54,839	53,449 [45,095]	-	1,390	55,551	53,051	53,051	44,324 [26,519]	-	-	49,917
·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53,515	51,909	50,601 [42,247]	-	1,308	53,641	51,141	51,141	42,912 [26,244]	-	-	48,198
· 말 예방백신 등 지원	1,910	1,910	1,910 [1,910]	-	-	1,910	1,910	1,910	1,412 [275]	-	-	1,719
· 미접종유형 긴급백신비축	1,020	1,020	938 [938]	-	82	-	-	-	-	-	-	-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구제역 발생 및 확산 방지 및 체계적인 말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예방백신 및 전염병 모니터링 지원 명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에 근거한 계속 성격의 사업
- 2020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최근 4년간 투입된 사업비는 `20년 54,629백만 원, `21년 56,445백만 원, `22년 55,551백만 원, `23년 예산(안)은 49,917백만 원으로 점차 감소 추세임
- 보조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국고 보조율은 35~100%, 말 예방백신 등 지원 국고 보조율은 90%임
- 사업시행 주체는 지자체, 공공기관(한국마사회)이고, 사업 수혜자는 축산 농가임
- 주요 사업은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말 예방백신 등 지원, △미접종유형 긴급 백신 비축으로 이루어져 있음.

## 사업 내용 및 효과

- 본 사업은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과 말 예방백신 등 크게 2개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짐

- 본 사업은 기존 '시도가축방역사업'에서 2020년 분리됨
- 철저한 예방접종 등을 통해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기대함
- 2019년~2022년 7월까지의 실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음
  - 실 집행률이 2020년~2021년 약 80%를 유지하고 있지만 2022년도에는 크게 하락했음
  -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 없지만, 부처 간의 사항으로 사업의 정상 추진이 가능토록 예산의 지속 반영을 건의함

<표 13>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b>2019</b>	-	-	-	-	-	-	-	-	-	-
<b>2020</b>	53,609	53,609	51,834	51,834	-	51,834	43,487	-	8,347	81.1
<b>2021</b>	55,425	55,425	52,511	52,511	-	52,511	44,157	-	8,354	79.7
<b>2022.12월</b>	55,551	53,051	49,810	49,810	-	49,810	38,304	397	11,109	72.2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 성과지표로 소·돼지 구제역 항체 양성률을 제시하고 있음.
- 2020년부터 매년 달성도 100%를 유지하고 있음
-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으로 2020~2022년도 국내 구제역 발생 0건을 제시함.
- 소·돼지뿐만 아니라 말 예방백신 등 지원 세부사업이 있는 만큼 말의 구제역 항체 양성률 성과지표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표 14> `19~`23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9	'20	'21	'22	'23	'23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소·돼지 구제역 항체양성률 (단위: %)	목표	-	80.1	86.0	86.6	89.0	최근 5년('17~'21) 항체양성률 실적치 및 사업수행 적극성 등을 고려 * 5년 평균 실적치: 87.1	{(소 항체 양성두수 / 검사두수)x0.3+ (돼지 항체 양성두수 / 검사두수)x0.7}x100	농림축산검역본부 혈청예찰보고서
	실적	-	91.0	93.5	--	-			
	달성도	-	100	100	--	-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 시사점 및 개선 방향

-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의 지원 비율은 35~100%인데 비해 말 예방백신 등 지원의 지원 비율은 90%으로 말 예방백신 등 지원에 대한 적절한 지방비 및 자부담 비율 검토 필요
- 최근 구제역 발생의 원인이 비체계적이고 전문적이지 않은 백신 배포 행위와 유통 문제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sup>7</sup>
  - 50마리 이상은 농·축협 동물병원에서 백신 구입 후 자가 접종하는 등 농장 규모에 따라 비전문가가 접종하거나, 접종 확인이나 사후관리가 미흡하며 전문가에 의한 접종관리와 전후 임상 예찰이 필요함
  -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사업 내 접종 시술비도 포함되어 있으며 접종 시술비 사업비 증액 필요
- 제1종 가축전염병인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백신 도입이 미국에서 검토 중임. 한국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백신 도입을 검토하는 등 예산 확보 필요성 제기<sup>8</sup>

7 “[구제역, 농가를 덮치다] 이원화된 백신 접종 시스템·유통 문제 개선 시급”, 한국농어민신문, 2023.05.19., 2023.05 접속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289>  
 8 “사상 최악 조류독감… 미국 정부, 닭에 백신 접종 검토”, 연합뉴스, 2023.03.07., 2023.05 접속 <https://www.yna.co.kr/view/AKR20230307084300009>

## 8. 가축방역 사업

(단위: 백만원)

	2021					2022('22.7월말)							2023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2,576 (32,576)	32,942	24,281 [24,281]	8,000	661	37,944	37,830	47,968	19,640 [19,640]	39,968	15,847 [15,847]	-	-	36,804
· 가축방역	24,342 (24,342)	24,585	23,760 [23,760]	226	599	27,021	26,907	29,271	15,909 [15,909]	29,045	15,847 [15,847]	-	-	28,031
· ASF전용 중대동물 차폐실험실 신축	8,234 (8,234)	8,357	521 [521]	7,774	62	10,923	10,923	18,697	3,731 [3,731]	10,923	- [-]	-	-	8,773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근절 및 최소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명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2,13,15조」, 「약사법 제85조」, 「동물보호법 제4,46,47조」 등에 근거한 계속 성격의 사업
- 2020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최근 4년간 투입된 사업비는 `20년 24,191백만 원, `21년 32,576백만 원, `22년 37,830백만 원, `23년 예산(안)은 36,804백만 원으로 증가 추세임
- 사업시행 주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방역감시과) 소관 직접 형태로 이루어지며, 사업 수혜자는 일반국민과 축산농가
- 주요 사업은 △가축방역, △ASF전용 중대동물 차폐실험실 건축으로 이루어져 있음
-

## 사업 내용 및 효과

- 가축방역 / ASF전용 중대동물 차폐실험실 건축 크게 2개 사업으로 이루어짐
- ASF, 구제역, AI 등 국가재난형 가축 질병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체계구축으로 국내 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를 통한 축산농가 및 관련산업 보호와 발전을 기대함
- 2019년~2022년까지의 결산내역은 다음과 같음
  -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집행률(C/B)은 2019년 92.3%였으나 '20년 94%, '21년 73.7%, '22년 80.1%로 편차는 있으나 평균 80%대를 유지하고 있음
  - 해당 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21회계연도 결산 예정위에서 지침에 부합하는 낙찰차액 적시 조정 및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부합하는 집행 필요가 국회에서 지적.
  -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로 계약 발생 시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부합되도록 낙찰차액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하도록 관리 철저 및 2022년부터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표 15>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19	18,147	-	18,147	1,581	-	-	19,728	18,211	100	92.3	1,008	509
2020	24,191	-	24,191	1,008	-	-	25,199	23,688	97.9	94.0	366	1,145
2021	32,576	-	32,576	366	-	-	32,942	24,281	74.5	73.7	8,000	661
2022	37,944	△114	37,830	8,000	2,138	-	47,968	38,415	101.5	80.1	8,873	679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로 '진단액 공급 가축 전염병의 감소율'을 제시하며 달성도를 평가함
-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으로 가축질병진단용 진단액(진단키트) 생산 구입, 가축질병 병성감정, 가축질병 혈청검사, 살처분 매몰지 점검, 축산농가 등 대국민 방역홍보활동, 등과 같이 동물 질병 검사 및 모니터링을 제시함

<표 16> '19~'23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9	'20	'21	'22	'23	'23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진단액 공급 가축 전염병의 감소율 (단위:%)	목표	2	2.5	3	3	3	최근5년간 진단액을 공급한 가축전염병의 평균발생 건수 대비 '23년도 발생 건수를 3% 이하로 관리토록 목표설정	100-(당해연도 진단액공급가축 전염병발생건수)/ (최근5년간진단액 공급가축전염병 평균발생건수) ×100	국가동물방역통 합시스템(KAHS) 통계자료
	실적	15.2	11.3	11.97	-	-			
	달성도	760	452	398	-	-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 시사점 및 개선 방향

- 국내 구제역 바이러스 실험 가능한 (중대동물 전용 생물안전 3등급 ABL3 실험실) 차폐동물실험 연구시설<sup>9</sup> 과는 별개로 ASF 대응 및 백신 개발 연구 등에 필요한 생물안전 3등급(BL3)의 차폐시설 마련 예정
  - 국내에서도 ASF 백신 개발, 평가 및 선정 등을 위한 다양한 감염 실험 업무수행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ASF 국내 대응 기대
  - 2023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2023년 예산에도 신축 예산 87.73억 원 예산 편성
  - 동물 사육실은 ABL3 실험실의 동물사와 마찬가지로 개방형 우리 등을 이용하여 동물 복지 측면에서 설계 필요함
- 특수 차폐연구 시설이 국내에 부족하여 현재 추진 중인 ASF전용 중대동물 차폐실험실을 민간에 개방하는 행정 예고 실시. 생물안전 3등급(BL3) 실험을 외부 이용자 활용 가능케 해서 연구 개발 활동 활성화 방침<sup>10</sup>

9 “검역본부, 국내 최대 규모의 구제역 차폐실험실 개시”, 돼지와사람, 2017.09.05., 2023.06 접속  
<http://www.pigpeople.net/news/article.html?no=3745>

10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알림, 2023.02.28., 2023.06 접속  
<https://www.qia.go.kr/viewLawWebAction.do?id=197787&type=3>

# 9. 동물복지축산인증제활성화 사업

(단위: 백만원)

	2021					2022('22.7월말)							2023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95 (1,095)	1,095	1,066 [1,066]	16	13	1,095	1,095	1,111	561 [495]	1,095	545 [479]	-	-	980
· 동물복지축산인 증제활성화	1,095 (1,095)	1,095	1,066 [1,066]	16	13	1,095	1,095	1,111	561 [495]	1,095	545 [479]	-	-	980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 사업 개요

- 해당 사업은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규 인증신청 농가 및 인증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소비자인 국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축산물의 홍보 등을 지원함.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1항, 제3항, 동법 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3항을 법령상 근거로 하며, '20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컨설팅 등 농가지원 포함됨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는 `20년 ~ `22년 1,095백만 원으로 동일하나 `23년 예산(안)은 980백만 원으로 감소함
  - 지원 형태는 직접 및 보조이며 국고 보조율은 컨설팅 40%, 판로지원 100%의 계속 사업임. 시행 주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식품부, (참여기관)지자체, 농정원이고 수혜자는 동물복지축산 인증농장 및 신규 인증신청 농장임
- `23년 예산안은 △규정집 및 업무매뉴얼, 안내물 등 제작 171백만 원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재료구입 7백만 원 △동물복지축산인증제 안내 120백만 원 △동물복지축산 교육프로그램 개발 75백만 원 △동물복지축산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작 39백만 원 △동물복지축산 인증가이드라인 제작 90백만 원 △동물복지인증 생산품 판로 지원 200백만 원 △동물복지축산 교육 민간위탁실시 95백만 원 △동물복지 인증 컨설팅 160백만 원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장비구입 23백만 원으로 이뤄져 있음

## 사업 내용 및 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신규인증 개소는 2019년 64곳, 2020년 35곳, 2021년 67곳으로 유동적이나, 정기교육 이수자의 경우 2019년 553명, 2020년 686명, 2021년 857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표 17>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9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실적 : 신규인증 64개소 - 인증누계 262개소(산란계 144, 육계 89, 양돈 18, 젓소 11) ○ 동물복지 축산농장 사후관리 점검실적 : 193 개소 ○ 정기교육 실시 : 553명 이수
2020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실적 : 신규인증 35개소 - 인증누계 297개소(산란계 168, 육계 97, 양돈 19, 젓소 13) ○ 동물복지 축산농장 사후관리 점검실적 : 223개소 ○ 정기교육 실시 : 686명 이수
2021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실적 : 신규인증 67개소 - 인증누계 364개소(산란계 190, 육계 131, 양돈 16, 젓소 26, 한우 1) ○ 정기교육 실시 : 857명 이수
2022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실적 : 신규인증 29개소(7월 기준) - 인증누계 393개소(산란계 206, 육계 136, 양돈 17, 젓소 31, 한우 3) ○ 정기교육 실시 : 교육실시 중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추이의 경우, 산란계와 육계, 젓소, 한우는 인증 농장 수가 점차 증가하는 데 비해 양돈은 2020년 19개소, 2021년 16개소, 2022년 17개소로 실질적으로 감소세임
- 2022년 7월 기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농가 393개소 중 산란계 206개소(52.4%), 육계 136개소(34.6%)로 대다수를 차지함. 염소와 오리는 각각 2015년, 2016년 인증기준이 마련됐으나, 실제 인증받은 농가는 한 곳도 없음

## 시사점 및 개선 방향

- 동물복지 축산농장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산란계, 육계의 신규인증은 꾸준한 증가세임. 실제 농가에서의 동물복지 기준 충족을 지속하기 위해 정기적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 지정 등 추진을 위해 예산 편성 필요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2023년 3월 16일 공개한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7%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91.6%가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 구매를 위해 추가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함.<sup>11</sup> 농장동물 복지에 관한 대중 인식이 높은 편이며 구매 욕구가 있어 예산 대폭 증액 요구됨. 양돈농가의 경우 동물복지농장 전환에 있어 어려움으로 초기비용 부담(75.3%), 판매처 확보 어려움(32.1%) 등을 들어 판로 확보와 함께 농가 시설전환 지원 필요<sup>12</sup>

- 현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농장이 없는 염소와 오리 종에 대한 연구와 유인책 마련되어야 함

11 “[보고서]2022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2023.06.15., 2023.06 접속  
<https://www.aware.kr/wp-content/uploads/2023/03/AWARE-2022-농장동물-복지에-대한-국민인식조사.pdf>

12 “[보고서]2022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양돈농가 인식조사”, 동물복지문제연구소, 2023.06.15., 2023.06 접속  
<https://www.aware.kr/wp-content/uploads/2023/03/AWARE-2022-농장동물-복지에-대한-양돈농가-인식조사.pdf>

# 10.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 사업

(단위: 백만원)

	2021					2022("22.7월말)							2023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526	3,526	3,526 (565)	-	-	4,693	4,693	4,693	4,693 (99)	4,693	4,693 (99)	-	-	7,041
· 동물보호센터설 치지원	3,526	3,526	3,526 (565)	-	-	4,693	4,693	4,693	4,693 (99)	4,693	4,693 (99)	-	-	7,041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 사업 개요

-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자율) 사업은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에 근거하여 농림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2019년에 신규 편성된 국고보조율 30~50%의 계속 사업임
  - 해당 사업은 2019년 신설 당시 「반려동물산업육성(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신설되었으며 2021년부터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자율)」으로 변경되었음
- 2019년 신설시 내역사업으로 △공공동물장묘시설 지원,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지원, △반려동물 놀이 시설 지원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20년부터 내역사업으로 △동물보호센터설치비 지원만 남아있음
  - △ 공공동물장묘시설 지원, △반려동물지원센터, △반려동물 놀이시설 지원사업은 2020년 지방 사무로 이양됨
  - △공공동물 장묘시설 지원사업 및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은 농특회계에서 진행되고 있었으며 2019년 균특으로 변경됨
- 해당 사업은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유기·유실 동물 보호·분양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함
  - 정부는 유실·유기동물은 증가하는 반면, 동물보호센터는 축소되고 있어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확대에 따른 시설 설치 부담 완화가 필요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밝힘

## 사업 내용 및 효과

-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은 지자체 보조율이 30~40%로 2019~2022년 7월까지의 실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음
  - 부처 집행률은 매년 100%인 반면 자치단체의 실 집행률은 매년 개선되고 있으나 이월액과 불용액이 꾸준히 발생하여 기관 간의 집행률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부처는 집행부진 사유로 착공지연에 따른 실 집행 부진으로 파악하고 있음
  - 집행 부진에 대해 국회에서는 ‘지자체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관리 강화’를 주문함

<표 18>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B/A)
	본예산	추경(A)								
2019	9,450	9,450	9,450	9,450	-	9,450	1,301	8,149	-	13.8
2020	4,644	4,644	4,644	4,644	8,249	12,793	2,032	8,109	2,742	43.8
2021	3,526	3,526	3,526	3,526	8,109	11,545	4,399	4,539	2,607	124.8
2022. 7월 기준	4,693	4,693	4,693	3,519	4,539	8,058	99	-	-	2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 다만 본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2022년까지는 유실·유기동물 분양 및 기증 마릿수였으며 2023년부터는 유실·유기동물 분양, 기증률로 변경됨
  - 해당 자료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자료를 활용하여 지자체 지정 동물보호 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 중 분양 또는 기증된 유기동물의 수를 집계하여옴

<표 19> '19~'23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9	'20	'21	'22	'23	'23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유실·유기동물 분양, 기증 마릿수(마리) (23년부터 유실·유기동물 분양, 기증률로 변경)	목표	38,294	43,818	43,064	45,461	43.5%	21년 분양·기증비율인 37.9%에 18~21년 평균증가율 2.8% 감안	지자체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 중 분양 또는 기증된 유기동물 수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자료활용/농림축산검역본부
	실적	40,052	40,105	44,847	-	-			
	달성도	104.6	91.5	104.2	-	-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 타 부처 유사 사업과의 비교

- 농림부의 유기동물보호시설과 유사한 사업으로는 환경부 소관의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있음
  - 동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큰 범위에서는 비슷한 사업이나 농림부는 유실·유기동물 및 학대동물을 대상으로, 환경부의 야생동물구조센터는 부상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임
  - 지원대상 또한 농림부는 시·도 또는 전년도 기준 유기동물 발생 두수 500~2,000마리 이상인 시·군·구를 지원하며, 환경부는 전국 16개 시·도, 즉 광역자치단체를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음
  - 사업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는 농림부는 유기동물 보호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비를 국비 30~40% 비율로 지원하고, 센터운영비는 별도 지원하지 않고 사업비 부족분은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
  - 반면 환경부는 야생동물 구조·치료센터의 설치비를 국비 50% 비율로, 운영비를 국비 30%의 비율로 지원하며 사업비 부족분은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시사점 및 개선 방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의 적절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함
  - 하지만 사업 추진배경에도 명시하였듯 사회문제로 부각된 ‘반려동물 문화 및 소유자의 인식 미정립 등에 따른 동물 학대 행위 및 유기동물 급증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동물보호센터만 늘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향후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에는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뿐만 아니라 인식 함양 등을 위한 교육 인프라, 즉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것도 사업의 내용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

# 11. 축산물수급관리 사업

(단위: 백만원)

	2021					2022("22.7월말)							2023 계획안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14,046	214,046	205,233 [176,390]		8,813	86,378	84,078	84,078	37,964 [37,964]	-	-	-	-	86,541
· 축산물수급조절 협의회	70	70	35 [23]		35	60	60	60	60 [60]	-	-	-	-	-
· 낙농통계관리시 스템	490	490	490 [485]		-	441	441	441	441 [441]	-	-	-	-	441
· 축산물수급안정 (경상)						32,093	32,093	32,093	6,353 [6,353]	-	-	-	-	28,810
· 축산물수급안정 (위탁)	120,564	120,564	120,270 [101,983]		294	1,234	1,234	1,234	840 [840]	-	-	-	-	1,234
· 생계및소득안정	6,829	6,829	6,829 [6,557]		-	1,100	1,100	1,100	770 [770]	-	-	-	-	1,100
· 학교우유급식	45,383	45,383	40,609 [36,835]		4,774	47,040	44,740	44,740	28,320 [28,320]	-	-	-	-	47,040
· 계란유통센터시 설현대화	4,410	4,410	3,600 [0]		810	4,410	4,410	4,410	900 [900]	-	-	-	-	7,916
· 임설치즈역사문 화관	2,000	2,000	2,000 [1,757]		-	-	-	-	-	-	-	-	-	-
· 가공원료유지원	18,600	18,600	18,600 [18,600]		-	-	-	-	-	-	-	-	-	-
· 송아지생산안정	700	700	300 [216]		400	-	-	-	-	-	-	-	-	-
· 원유수급조절	15,000	15,000	12,500 [9,932]		2,500	-	-	-	-	-	-	-	-	-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축산발전기금 일환 사업으로 축산법, 낙농진흥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법적 근거 하에 국고 보조율 30~100%로 이루어져 있음
  - 사업시행 주체는 시·도지사, 시·군·구의 장 등 지자체(생계 및 소득안정/ 학교 우유급식/ 계란유통 시설현대화) 포함 낙농진흥회(낙농통계관리시스템), 농협중앙회(축산물수급안정 위탁),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임
  - 2023년 계획안 내역사업 별로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학교우유 급식 사업이 가장 높은 지원을 받고 있음

<표 20> 내역사업명에 따른 지원 금액 및 지원 비율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3계획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낙농통계관 리시스템	보조	낙농진흥회	441	100%	「축산법」 제3조, 「낙농진흥법」 제3조
축산물수급 안정(경상)	보조	낙농진흥회 농협경제자주	28,810	100%	「축산법」 제3조, 「낙농진흥법」 제3조
축산물수급 안정(위탁)	위탁	농협	1,234	100%	「축산법」 제3조
생계및소득 안정	보조	지자체	1,100	70%	「축산법」 제3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9조
학교우유급식	보조	지자체	47,040	60%	「축산법」 제3조
계란유통센터 시설현대화	보조	지자체	7,916	30~100%	「축산법」 제3조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 우유급식 대상 65만 명에 250일 동안 200ml 우유(480원) 지급 비용의 60%를 지원하는 것이며, 학교 우유급식 지원 시스템 운영비 등 명목으로 2.4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축산물 수매·비축 목적의 축산물 수급안정 민간위탁 사업은 전년도 동일하고, 송아지 생산 안정 및 국산 유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인 민간경상 사업의 경우 32여억 원 정도가 감축되었음

- 궁극적으로 소, 돼지, 닭, 우유 등 수급과 가격을 안정화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며 그 기반이 되는 유통시설 현대화, 수급 상황 데이터 관리 등에 예산이 편성돼 있음

## 사업 내용 및 효과

- 최근 5년간 달성한 성과지표는 크게 분유 재고량, 한우 가격 변동계수이며, 성과지표 외의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농가 생계·소득안정 자금 지원 등이 있음
  - 국산 우유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외국산 우유 수입도 증가하는 추세임. 과거 분유 재고량 근거로 산출하여 제시된 달성도를 보면 1만 톤 이상의 재고가 발생한 바(`20) 있으며 평균적으로 7천 톤 이상의 재고량이 발생하고 있음. 외국산 우유 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 2016년 1,214t에서 2021년 1만 982t으로 800% 이상 폭증하였음<sup>13</sup>

<표 21> `19~`23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9	'20	'21	'22	'23	'23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분유재고량 (천톤)	목표	9.6	9.6	9.6	9.7	9.6	'16년부터 수급 안정 및 적정 재고량 유지를 위하여 '23년 목표치를 96천톤으로 설정(과거 10년평균 분유 재고량의×1.1(계절편차 반영))	연도말 분유재고량(전국)	한국유가공협회 통계자료
	실적	7.1	11.1	8.4	-	-			
	달성도	125.0	85	111	-	-			
한우가격 변동계수(계수)	목표	1이하	1이하	1이하	1이하		수급상황에 따른 정책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당해연도 가격변동계수가 이전 10년간의 변동계수 평균치보다 낮도록 설정	당해연도 가격변동계수 / 과거 10개년 가격변동계수 평균	농식품부 전수조사
	실적	1.0	0.88	1.7	-	-			
	달성도	100	100	59	-	-			
한우가격 변동계수(계수)	목표	1이하	1이하	1이하	중요	중요		당해연도 가격변동계수 / 과거 10개년 가격변동계수 평균	농식품부 전수조사
	실적	0.36	0.79	0.4	-	-			
	달성도	164	117	150	-	-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13 “우유 재고 넘치는데 수입 급증...원유가격연동제 뭐길래”, 한국경제TV, 2021.08.12., 2023.05 접속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8120170>

## 시사점 및 개선 방향

- 축산물수급안정(낙농업 안정화) 명목 하에 81년부터 무려 40년간 우유 급식 제도가 유지되어 왔음.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우유를 마시지 않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본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도적 강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 우유 급식에 의한 포만감으로 급식을 먹지 않거나 남는 우유 대부분이 폐기되고, 우유를 소화하지 못하는 유당불내증 또는 우유 알레르기 등 학생이 겪는 문제를 등한시한 강제성이 여전하다는 현직 영양 교사들의 지적 제기됨
  - 이미 우유가 아닌 다른 식품을 통해 필수 영양소를 공급받는 현실에서 우유로 인한 영양소 과잉과 각 수급자 건강상 부작용 등으로 우유 무용론은 이미 사회적으로 언급된 바 있으며 우유의 생산 과정에서 반복적인 젖소의 강제 수정, 임신, 출산 등 비 인도적 방식에 대한 사회 반감이 고조되며 아몬드 우유, 귀리 우유 등 대체식품 소비가 늘면서 정부의 우유 급식제도에 대한 재고 및 학생들의 우유섭취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12. 말산업육성지원/ 말산업 육성지원(융자) 사업

(단위: 백만원)

	2021					2022('22.7월말)								2023 계획안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	집			
○ 기능별 분류(합계)	23,158	23,158	23,044 [19,013]	-	114	21,994	21,994	21,994	21,917 [6,818]	21,994	21,917 [6,818]	-	-	19,725
· 승마체험관광활성화지원	7,901	7,901	7,886 [6,381]	-	14	6,890	6,890	6,890	6,890 [2,708]	6,890	6,890 [2,708]	-	-	6,275
· 승마저변확대지원	1,215	1,215	1,175 [1,133]	-	40	1,350	1,350	1,350	1,350 [710]	1,350	1,350 [710]	-	-	1,450
· 승마대회활성화지원	1,080	1,080	1,080 [648]	-	-	1,955	1,955	1,955	1,955 [84]	1,955	1,955 [84]	-	-	1,600
· 말산업특구지원	2,000	2,000	2,000 [1,987]	-	-	2,000	2,000	2,000	2,000 [929]	2,000	2,000 [929]	-	-	1,700
· 농어촌승마시설살차지원	1,583	1,583	1,583 [594]	-	-	1,350	1,350	1,350	1,350 [388]	1,350	1,350 [388]	-	-	1,120
· 말산업융합반도체지원	3,363	3,363	3,363 [3,353]	-	-	1,504	1,638	1,638	1,638 [106]	1,638	1,638 [106]	-	-	1,600
· 승용마전문생산농가지원	599	599	539 [390]	-	60	744	780	780	738 [155]	780	738 [155]	-	-	720
· 경주퇴역마활용지원	270	270	270 [255]	-	-	280	150	430	430 [65]	430	430 [65]	-	-	430
· 전문인력양성및취업지원	2,760	2,760	2,760 [2,159]	-	-	3,171	3,171	3,171	3,137 [1,331]	3,171	3,137 [1,331]	-	-	2,500
· 말산업개발산단내체육축	2,387	2,387	2,387 [2,113]	-	-	2,750	2,430	2,430	2,430 [342]	2,430	2,430 [342]	-	-	2,330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외국농업과의 경쟁 심화 FTA 체결 등 시장개방 대응 및 농업 경쟁력 강화 명목으로 「말산업육성법」에 근거한 계속 성격의 사업
- 2006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는 `19년 31,063백만 원, `20년 27,907백만 원, `21년 23,158백만 원, `22년 21,994백만 원, `23년 예산(안)은 19,725백만 원으로 점차 감소 추세임
- 보조와 융자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국고 보조율은 20~100%, 융자율은 30~100%임
- 사업시행 주체는 지자체, 한국마사회 등이고, 사업 수혜자는 지자체, 마사회, 대학, 농업 법인 단체, 농업인, 일반인 임
- 주요 사업은 △말산업 저변확대, △말산업기반 조성, △말산업 경쟁력 강화, △말산업 지속발전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음. ‘말의 생산 사육 조건 유통 이용’ 등을 통해 일자리 및 농촌 경제 활성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음

## 사업 내용 및 효과

- 「말산업육성법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정부는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 제3차 말산업육성 종합계획에 따르면 승마산업 육성을 위해 1) 즐기는 말문화 확산, 2)말산업 가치 창출 확대, 3)말산업 사회공헌 강화 등 3대 전략과 9대 과제 추진 계획을 공표함
-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로 경주마 경매 시장 침체에 따른 생산 농가 지원금 확대 편성. 생산한 말을 경매 상장시킬 때 육성조련 성과를 기반으로 지급하는 경매유통장려금(약19억 원)의 지원 규모를 늘리고 국산마 경주성적을 근거로 지급되는 생산 장려금(약33억 원)에 경매유통 활성화를 위한 경매 참여마 인센티브 신설<sup>14</sup>
- 승마 저변확대, 말산업 일자리 확충 등 말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농촌 경제 활성화 도모 기대
- 2019년~2022년 7월까지의 실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음
  - 실 집행률이 2019년~2021년 평균 80%를 밑도는 상황이지만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 평가가 없음

14 “마사회, ‘말산업’ 선도기업으로 도약 기대”, 한국농촌경제신문, 2022.12.12., 2023.06 접속  
http://www.kenews.co.kr/news/article.html?no=82675



<표 22>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당초	수정(A)								
2019	33,590	31,063	31,055	31,055	-	31,055	25,155	-	5,900	81.0
2020	28,295	27,907	26,926	26,926	-	26,926	21,474	-	5,452	76.9
2021	23,158	23,158	23,044	23,044	-	23,044	19,013	-	4,031	82.1
2022. 7월기준	21,994	21,994	21,677	21,677	-	21,917	6,818	-	-	31.0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 성과지표로 정기 승마인구 증가수만 제시되어 있음. 전년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은 2019년도 기승능력인증제, 2020년도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규 및 개보수 지원 등으로 확인 가능
- 2019년도에 107.8% 달성도를 기록했으나 2020년도에는 76%로 크게 떨어진 후 2021년도에는 목표를 약 20% 낮추어 달성도 116.6%를 기록함
- 말의 전 이용 과정에 대한 체계적 이력 관리를 위한 정기실태조사 시행 및 말 이력 정보 현행화와 관리 강화를 위해 마사회 말등록원의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경주마 퇴역건수, 전환용도 등 말의 관리 체계에 대한 성과 달성도가 제시되어야 함. 더 나아가 경주 퇴역마의 재활, 휴양, 위탁 관리비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 후 지원 건수 또한 성과지표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표 23> '19~'23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9	'20	'21	'22	'23	'23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정기승마인구 증가수 (단위: 명)	목표	52,900	55,710	42,000	48,000	50,000	코로나 상황을 감안, '19~'21년 3개년 실적의 평균수준으로 설정	전수조사 (전화조사, 방문면접조사, 실문조사)	말산업 실태조사
	실적	57,046	42,318	48,970	-	-			
	달성도	107.8	76.0	116.6	-	-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 시사점 및 개선 방향

- 말산업 가치 창출 향상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경쟁력 확보 목적으로 2006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면서 2011년도 제정된 말산업 육성법에 근거하는 만큼 말산업 육성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
  - 승마산업 규모, 승마시설, 승마산업 일자리는 2017년도부터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말 사육두수 및 승마 산업 사업체는 유지된 상황. 생산되는 말의 생산 두수를 관리하고 그 수를 점차 줄여가야 함
  - 전체 197.25억 원 예산 중 경주 퇴역마 활용지원에 대한 예산은 4.3억 원, 전체 예산의 약 2.18%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퇴역마에 대한 인도적 고려가 전무한 상황
  - 용도 미정으로 분류되는 퇴역마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말 이력제를 의무화해 퇴역 경주마의 용도 전환 이후 최종용도를 파악하는 노력을 해야 함
  - 정부는 적절한 사육 및 관리의무 준수, 기증과 분양 등 적절한 보호 관리를 통해 경주 퇴역마를 포함한 모든 사육마들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 등을 위하여 봉사하거나 국민의 복지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한 동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함
  - 경주 퇴역마 활용지원을 말고기 소비촉진, 말고기 등급판정제도, 말 부산물 활용 개발 등으로 한정하기 보단 퇴역 경주마 보호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따라서 본 사업 예산 규모를 점진적으로 감축하되, 경주 퇴역마의 보호 관리 지원을 위한 경주 퇴역마 활용지원 예산 비중을 높여야 함

# 13. 가축위생방역지원 사업

(단위: 백만원)

	2021					2022(22.7월말)								2023 계획안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0,726	63,501	63,501 [62,907]	-	-	62,413	64,270	64,270	57,088 [30,317]	64,270	57,088 [30,317]	-	-	63,817
· 방역본부 운영지원	33,135	33,135	33,135 [33,017]	-	-	33,902	33,902	33,902	31,014 [14,111]	33,902	31,014 [14,111]	-	-	34,602
· 방역본부 자산취득	776	776	776 [776]	-	-	1,131	1,131	1,131	1,131 [23]	1,131	1,131 [23]	-	-	1,231
· 방역직 인건비	12,748	12,748	12,748 [12,742]	-	-	12,932	12,932	12,932	10,861 [6,228]	12,932	10,861 [6,228]	-	-	13,152
· 공동방제단 운영	14,067	14,067	14,067 [13,850]	-	-	14,448	14,448	14,448	12,225 [8,395]	14,448	12,225 [8,395]	-	-	14,832
· 질병발생대비 가축사육제한	-	2,775	2,775 [2,522]	-	-	-	1,857	1,857	1,857 [1,560]	1,857	1,857 [1,560]	-	-	-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 사업 개요

- 해당 사업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을 지원해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추진하고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과 방역직 인건비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방역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는 2019년 58,138백만 원, 2020년 62,899백만 원, 2021년 63,501백만 원, 2022년 62,413백만 원, 2023년 63,817백만 원으로 대체로 증가세임
  - 지원 형태는 보조이며 국고 보조율은 민간 100%, 지자체 50~60%의 계속 사업임. 시행 주체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자체, 농·축협이고 수혜자는 축산농가임
  - `23년 예산안은 △방역본부 운영지원 △방역본부 자산취득 △방역직 인건비 △공동방제단으로 이뤄져 있음

## 사업 내용 및 효과

- `19~`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는 구제역(소) 항체 양성률, 구제역(소, 돼지) 백신 항체 양성률로 설정돼 있음
  - 2019~2023년 매해 목표를 100% 이상 초과 달성하고 있음. AI 방역사업(시료채취 실적)은 2019년 612,234점, 2020년 782,462점, 2021년 1,097,264점으로 점차 늘고 있고, 구제역 검사시료 채취도 2019년~2021년 매해 목표를 달성해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에 기여함
  -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 직접 연관성 있는 성과지표는 없음

<표 24> `19~`23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9	'20	'21	'22	'23	'23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구제역(소) 항체 양성률 (단위: %)	목표	95.0	96.8	97.0	-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국제기준(80%)에 맞춰 이보다는 높은 수준 으로 목표 설정	(항체양성두수/ 검사두수)×100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동물방역통합 시스템 자료
	실적	97.8	97.3	98.1	-	-			
	달성도	102.5	100.5	101.1	-	-			
구제역(소, 돼지) 백신 항체 양성률(%)	목표	신규	신규	신규	86.6	89.0	최근 3년간('18~'20) 소, 돼지 항체양성률을 토대로 한 실적치 평균 (86.4%) 보다 목표치 상향 설정(86.6%) * (2015.7%, 1992.4, 2019.0)	((소 항체양성두수/ 검사두수)×100+ (돼지 항체 양성두수/ 검사두수)×100	농림축산검역본부 현청예찰 보고서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	-	-	-	-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 시사점 및 개선 방향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가축방역사는 무기계약직(공무직)이 95.7%로 정규직인 일반행정 직은 4.3%에 불과해 낮은 처우로 이직률도 높아 개선 필요함. 방역 허점으로 직결되고 있어 가축전염병 예방 차원에서도 예산 확보 필요<sup>15</sup>
  - 반려동물 영업장의 경우, 동물복지 저하를 방지하고자 '개 또는 고양이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와 같이 동물 마리수 당 인력 기준이 정해져 있음. 그에 비해 가축방역사는 1명당 농가 360곳, 동물 91만 마리를 관리하고 있어<sup>16</sup> 사람과 동물 모두의 건강에 영향을 미쳐 적절한 인력 설정과 증원되어야 함

15 “가축전염병 무섭게 퍼지는데… 방역사들 인력난·푸대접에 비명”, 서울신문, 2022.12.25., 2023.06 접속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226010012>

16 “방역사 1명당 가축 91만마리…무너지는 살처분 ‘최후의 방어선’”, 한겨레, 2019.02.23., 2023.05 접속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3281.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3281.html)

# 14. 원유소비활성화 사업

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원유생산량 대비 치즈용으로 국산원유 투입량을 나눠 백분율로 표기하나 달성도는 100%에 못 미침

<표 25> '19~'23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단위: 백만원)

	2021					2022('22.7월말)							2023 계획안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계)	10,000	10,000	10,000 [10,000]	-	-	9,000	9,000	9,000	9,000 [9,000]	-	-	-	-	9,000
-원유소비활성화	10,000	10,000	10,000 [10,000]	-	-	9,000	9,000	9,000	9,000 [9,000]	-	-	-	-	9,000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국산 원유를 사용한 치즈 등 유제품 생산 활성화로 FTA 확대 등 개방화에 따른 국내 원유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국산 유제품 생산 사업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둠
  - 지난 2016년 한·뉴질랜드 FTA 체결에 따른 낙농 분야 피해대책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유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구입비, 유통·판매 등 자금을 용자로 지원하는 사업임
  - 용자율 100%로 지원되며, 사업시행 주체는 (사)낙농진흥회, 사업 수혜자는 유가공업자(목장유가공업자 포함)임

## 사업 내용 및 효과

- 원유소비활성화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3년 예산안 기준으로 유가공업자 지원 총액 90억 원임. 주요 사업은 △원유구입비, △시장개척비, △유제품 개발 및 R&D 사업으로, 원유구입비에 69억 원, 시장개척비 12억 원, 유제품 개발 및 R&D 비용에 9억 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최근 5년간 투입된 총사업비는 19년부터 21년까지 매년 100억 원이었으나 22년부터 90억 원으로 삭감되었음
  - 2019년부터 5년간 성과 달성도를 보면 성과지표는 크게 2개로, ①치즈생산용 국산원유투입률과 ②가공유제품 생산용 국산원유투입률로 나뉘어 있음. 국내 원유생산량 감소 추세 등으로 치즈 원유 투입량

성과지표	구분	'19	'20	'21	'22	'23	'23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치즈생산용 국산원유투입률 (%)	목표	1.9	1.9	1.9	-	-	'16년부터 수급 안정 및 국내 원유생산량 감소 추세 등으로 치즈용 원유 투입량 감소 추세, 최근 실적치를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치즈용 국산원유투입량 / 전체원유생산량 ×100	우유 유제품 생산 소비실적 통계
	실적	1.6	1.8	1.6	-	-			
	달성도	89.5	94.7	88.9	-	-			
가공유제품 생산용 국산원유투입률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24.6		시장개방확대로 유제품 수입 증가에 따라 해당 사업을 통한 유제품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목표치 설정	(가공 유제품용 국산 원유 투입량 / 전체 원유 생산량) × 100	우유 유제품 생산 소비실적 통계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달성도	-	-	-	-	-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 성과지표 이외 실적을 보면 지난 21년, 1개소에 치즈·분유용 원유 구입 및 소비촉진 홍보비로 100억 원 집행, 지난 22년 동일한 비목으로 2개소에 100억원 집행하였음

## 시사점 및 개선 방향

- 저출산 등 여러 요인으로 1인당 우유 소비량은 감소 추세지만 치즈, 버터 등 유제품에 대한 1인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1인당 음용유(우유) 소비량은 2001년 36.6kg에서 2021년 31.9kg으로 감소했지만 치즈, 발효유, 버터 등 가공 유제품 1인당 소비량은 2001년 63.9kg에서 86.1kg으로 증가함.<sup>17</sup> 그러나 증가하는 가공 유제품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유제품 수입량은 2001년 65만 톤에서 2021년 251만 톤으로 4배 가까이 급증함. 그 이

17 낙농진흥회, '유통소비통계'

- 유로 국내 원유가보다 수입산 원유가가 절반 정도로 저렴하고,<sup>18</sup> 홀스타인종(Holstein)을 주로 사육하는 국내 낙농업의 특징<sup>19</sup>이기 때문임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유제품 수입의 급증으로 최근 정부는 치즈와 버터 등 유단백 함량이 높은 저지(Jersey) 소 수정란을 도입하여 국내산 원유를 이용한 유가공품 생산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sup>20</sup>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새로운 외래종 수입이 과연 올바른 방안인지 장기적 관점에서 재고가 필요함
- `20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가 미흡(78.4)으로 나옴에 따라 예산의 10% 감액 결과가 제시되었다는 것은 사업의 집행률뿐만 아니라 실효성 측면에서 미흡한 사업이라는 판단임. 90억~100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나라 재정이 투입된 본 사업 자체에 고찰과 획기적인 개선 방안 강구 필요함

○ 정부는 본 사업으로 치즈·분유용 원유 구입 및 소비촉진 홍보에 기여했다고 총평하고 있지만 치즈 생산용 국산 원유투입률 및 치즈 제외한 가공 유제품 생산용 국산원유투입률 외의 성과지표는 제시되고 있지 않음

- 매년 진행되는 만큼 홍보의 성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최소한의 지표가 필요함. 정량·정성적 평가가 필요함
- 또한 지난 3개년 사업에 해외 유명제품 벤치마킹 및 국내 소비자 입맛에 맞는 한국형 유제품 개발과 소비자 반응조사 등이 진행된 것으로 되어 있어 진행 과정 및 결과를 투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15. 축사시설현대화(육자) / 축사시설현대화

(단위: 백만원)

	2021					2022('22.7월말)							2023 계획안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91,222 (190,222)	190,222	190,222 [172,154]	-	-	168,783	171,449	171,449	166,017 [138,511]	171,449	166,017 [124,118]	-	-	148,525
· 축사시설개선	104,176 (105,801)	105,801	105,801 [101,087]	-	-	75,454	91,970	91,970	91,720 [79,124]	91,970	91,720 [77,875]	-	-	58,900
· 축산분야 ICT 시설지원	74,046	74,046	74,046 [69,622]	-	-	84,146	76,021	76,021	74,297 [59,387]	76,021	74,297 [46,243]	-	-	75,481
· 스마트축산 사업단지 조성	13,000 (10,375)	10,375	10,375 [1,445]	-	-	9,183	3,458	3,458	- [392]	3,458	- [-]	-	-	13,344
· 젖소 우량우 목장 조성사업	-	-	-	-	-	-	-	-	-	-	-	-	-	800
○ 비목별 분류(합계)	191,222 (190,222)	190,222	190,222 [172,154]	-	-	168,783	171,449	171,449	166,017 [138,511]	171,449	166,017 [124,118]	-	-	148,525
· 민간경상보조 (320-01)	7,346	7,346	7,346 [7,445]	-	-	6,246	6,246	6,246	4,272 [3,785]	6,246	4,272 [3,208]	-	-	6,981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45,389	44,389	44,389 [28,492]	-	-	49,103	51,636	51,636	40,058 [22,039]	51,636	40,058 [8,223]	-	-	42,817
· 기타민간융자금 (450-04)	138,487	138,487	138,487 [136,217]	-	-	113,434	113,567	113,567	112,687 [112,687]	113,567	112,687 [112,687]	-	-	98,727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FTA)이행지원기금 사업임. 축산업 진흥 프로그램의 일환이며 계속 성격의 사업
  - 보조와 육자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국고 보조율은 30~100%, 육자율은 30~80%임
  - 사업시행 주체는 시도지사, 시군구의 장, 농협경제지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등임
  - 2009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24년까지 추진 예정임.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는 `19년 219,051백만 원, `20년 200,163백만 원, `21년 191,222백만 원, `22년 168,783백만 원, `23년 예산(안)은

18 2022년 기준 국산 원유 가격은 리터당 999원, 수입산 가공유 국제가격은 리터당 400~500원 선 (출처: “위기의 낙농업...” 신제품 도입 등 출구 찾는다!, 굿뉴스통신, 2022.12.01., 2023.05 접속 <http://www.good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84048>)

19 홀스타인종에서 생산된 우유는 지방, 단백질 함량이 적어 치즈나 버터 등 유가공품을 생산하는데 불리

20 농림축산식품부, “갈색 젖소 ‘저지종’ 본격 도입, 고부가가치 유가공품 생산으로 낙농 경쟁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3.01.17., 2023.06 접속 <https://www.mafra.go.kr/home/510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MiUyRjU2NTE0NCUyRmFydGNsVmllYy5kbyUzRg%3D%3D>

- 주요 사업은 △축사시설 개선, △ICT 융복합시설 지원,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젖소 우량우 목장 조성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스마트화를 기반으로 한 축산 시스템 확산으로 가축사육의 수익성 제고 및 축산의 안전, 환경, 질병 예방을 고려한 구조개선 유도를 기대하고 있음

### 사업 내용 및 효과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설현대화(‘21년 우량송아지생산 비육시설지원 사업이 일부로 통합되고 용자로 전환됨),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ICT시설설치 지원, 농가 장비도입 및 데이터 등 컨설팅 지원,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관리, 스마트 축산단지 관제시설 등이 있음
  - 스마트 축사의 현황은 지난 2014년 23호에 불과하던 게 2021년 기준 4,700호(전체 15.6%)로 집계되고 있음. 정부는 ‘27년까지 2.3배인 11,000호로 늘린다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면서(10곳 중 3곳 스마트화) 그 성과로서 양돈 농가의 경우 출하두수와 ‘상’등급 출현율이 향상되었으며 사료 요구율은 감소했다는 결과가 언론을 통해 알려짐<sup>21</sup>

<표 26> 출연·보조사업 등 실적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B/A)
	당초	수정(A)								
2019	49,019	49,019	48,677	48,677	24,519	79,197	35,210	28,075	9,912	71.8
2020	72,356	58,535	57,530	57,530	26,354	83,822	42,760	34,951.6	6128.7	74.3
2021	52,735	51,735	51,735	51,735	34,952	86,687	35,937	45,398	5,352	41.5
2022. 7월 기준	55,349	57,882	44,330	44,330	45,398	89,728	25,824	-	-	28.8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21 “사전컨설팅으로 스마트 축사 꼼꼼하게 지원”, 영농자재신문, 2018.06.14, 2023.05 접속 <http://www.newsfm.kr/news/article.html?no=2924>

<표 27> `19~`23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9	'20	'21	'22	'23	'23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원농가 연간 모돈두당 출하두수(마리)	목표	19.1	20.2	20.7	20.8	20.9	당해년도 출하마리수 / 전년도 모돈 수	당해년도 출하마리수 / 전년도 모돈 수	대상농가 점검자료(농협)
	실적	20.1	20.5	21.4	-	-			
	달성도	105.2	101.5	103.4	-	-			
지원농가 산란계 산란율(%)	목표	82.8	84.1	84.2	85.3	85.5	마리당 1년간 생산계란 개수 / 365일 x 100	마리당 1년간 생산계란 개수 / 365일 x 100	대상농가 점검자료(농협)
	실적	84.0	84.19	87.6	-	-			
	달성도	101.4	100.1	104	-	-			
지원농가 농가 두당 우유생산량(kg)	목표	9,346	9,516	9,519	-	-	마리당 1년간 생산계란 개수 / 365일 x 100	마리당 1년간 생산계란 개수 / 365일 x 100	대상농가 점검자료(농협)
	실적	9,514	9,501	9,586	-	-			
	달성도	101.8	99.8	100.7	-	-			

자료: 각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서

- 성과지표로 지원 농가 돼지(모돈) 출하두수, 산란계 산란율, 젖소 우유 생산량 및 개보수 시설 개소로 제시됨

### 시사점 및 개선 방향

- 사료 자동급이기, 음수 관리기 등 “생산성 향상” 중심의 장비 보급이라는 점에서 악취 저감, 질병 예방 등과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2년 악취 주된 원인 통계에서 ‘축사’가 전체의 55%(응답자 538명)를 차지함
  - 또한 컨설팅에 있어서 농가들이 ICT 장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현실에 고도의 기술을 지닌 노하우와 지식을 전수할 컨설턴트도 국내에 40여 명에 불과한 실정이고 컨설팅은 장비 소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옴<sup>22</sup>
  - 성과지표 측면을 보면 증가하는 사육두수에 비례하여 악취, 분노 문제나 가축전염병 확산에 따른 살처분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악취 및 분노의 효과적 저감과 가축전염병 예방 여부가 성과지표로서 제시되어야 함

22 “스마트축산, 어디까지 왔나”, 축산신문, 2019.03.13., 2023.05 접속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159473>

- 나아가 동물복지농장 지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확장하고, 그 방안을 확대해 나가야 함. 단순 생산성 효율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개도국 정책에 지나지 않음. 정부는 축산업에도 동물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만 여전히 현상 유지에 그침. 스마트농장 자체는 복지농장이 아닌바 공장식 관행 축산 형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 한계가 있음. 본 사업은 2024년까지 추진될 예정인바 내년도 사업 예산을 큰 폭으로 감축하고 동물복지농장 시설 개선 및 판로 확보 등에 예산을 투여하여 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향이 요구됨
  - 우선 지원하는 <`20~`24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동물복지 기준에 따른 사양 방식, 축사 시스템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지난 2018년 동물복지형 전환 농가에 대해 예산을 우선·우대 지원한바 `24년 예산안에 해당 지원사업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함
-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해 22~24년 예산을 현 예산대비 높은 수준으로 감축할 필요성 및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축산농가의 수요 파악에 대한 사업 대상자 및 보조율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등 사업방식변경 및 감축이 제시된 만큼 해당 사업의 전체적 검토가 요구됨

# III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사업 예산 분석 개요<sup>23</sup>



23 본 분석은 2023년 11월 1일 국회에서 진행된 제11회 2024 나라예산 토론회에서 발표됨

# 말 복지 전무한 말산업육성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발전기금, 말산업육성지원 /  
말산업육성지원(융자)

##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말산업육성지원	21,677	19,725	19,725	21,060	16,482
·보조	21,437	19,605	19,605	19,824	15,383
·융자	240	120	120	1,236	1,099

— 사업내용: 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농촌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말산업 저변확대, △말산업 기반 조성, △말산업 경쟁력 강화, △말산업 역량강화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음

## 문제점

— 승마산업 규모, 승마시설, 승마산업 일자리는 2017년도부터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말 사육두수 및 승마 산업 사업체는 유지된 상황. 생산되는 말의 생산 두수를 관리하고 그 수를 점차 줄여가야 함

(단위: 백만원)

	2022				2023('23.7월말)						2024 계획안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불용액	계획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기능별 분류(합계)	21,994	21,994	21,677 [18,531]	317	19,725	19,725	19,725	18,817 [8,146]	19,725	18,817 [8,146]	16,482
· 말산업 저변확대	10,195	9,585	9,585 [8,310]	-	9,325	9,325	9,325	8,786 [4,554]	9,325	8,786 [4,554]	7,725
· 말산업 기반조성	4,854	5,890	5,650 [4,509]	240	4,420	4,420	4,420	4,069 [979]	4,420	4,069 [979]	4,219
· 말산업 경쟁력강화	1,024	1,195	1,153 [1,065]	42	1,150	1,150	1,150	1,132 [504]	1,150	1,132 [504]	1,078
· 말산업 역량강화 지원	5,921	5,324	5,290 [4,646]	34	4,830	4,830	4,830	4,830 [2,108]	4,830	4,830 [2,108]	3,460

— 전체 16,482백만 원 예산 중 경주 퇴역마 활용지원에 대한 예산이 포함된 말산업 경쟁력 강화에는 1,078백만 원 배치돼 전체 말산업 예산의 약 6.54%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경주 퇴역마에 대한 인도적 고려가 전무함

## 의견: 72백만 원 증액

— 퇴역 경주마에 대한 경제적 이득을 기반한 활용 측면보다 퇴역 경주마 보호시설 등과 같은 '말 복지' 향상을 위한 재할 지원과 보호 예산의 추가 편성을 요구함

# 살처분된 동물에 대한 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가축사체처리지원

##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가축사체처리지원	8,355	9,769	-	2,930	2,930

- 사업내용: 매몰지 환경관리 강화 등을 목적으로 △가축사체처리지원,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살처분가축처리 시설·장비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음

## 문제점

- 수년 전 매몰됐던 가축 사체가 폭우 등으로 드러나는 경우 다수 발생하면서 침출수 우려도 큼. 매몰지 발굴 및 소멸률은 지속적으로 관리 필요
-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을 보면 지자체는 처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렌더링 과정 모니터링 부실, 살처분 가축 불법 매립 의혹 등 여러 문제점 지적됨
- 지난 3년간 부처 평균 집행률은 88.7%인데 반해 보조기관의 실 집행률은 20%대로 실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살처분가축처리 시설 장비 확대 (고정식 렌더링 기계 설치지원), 매몰지 관리 소멸 절차 및 방법 구체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 확보 필요

## 의견: 증액

- 세부사업의 전체 규모는 유지하면서 렌더링 과정 모니터링, 살처분 가축 불법 매립 모니터링에 대한 예산 추가 확보 필요

#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책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가축백신지원

##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가축백신지원	49,810	49,917	49,917	49,535	49,535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47,900[42,160]	48,198	48,198	48,198	48,198
말 예방백신 등 지원	1,910[1,910]	1,719	1,719	1,337	1,337

- 사업내용: 구제역 발생 및 확산 방지, 체계적인 말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예방백신 및 전염병 모니터링 지원 목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말 예방백신 등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음

## 문제점

-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의 보조금 지원 비율은 35~100%인데 비해 말 예방백신 등 보조금 지원의 지원 비율은 70%로 말 예방백신 등 지원에 대한 적절한 지방비 및 자부담 비율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검토 필요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3조(비용의지원) 제3항에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하여 소요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최근 구제역 발생의 원인이 비체계적이고 전문적이지 않은 백신 배포 행위와 유통 문제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집단으로부터 제시되고 있음<sup>24</sup>

24 [구제역, 농가를 덮치다] “이원화된 백신 접종 시스템·유통 문제 개선 시급”, 한국농어민신문, 2023.05.19., 2023.09 접속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289>



## 의견: 유지

- 세부사업의 전체 규모는 유지하면서 지원 사업 내 접종 시술비에 대한 사업비 증액 필요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백신 도입 검토 및 예산 확보 필요
- 말 예방백신 지원에 대한 자부담 비율 증가 필요

# 국민 인식 못 따라가는 동물복지농장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동물복지축산인증 제활성화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동물복지축산인증제활성화	1,070	980	980	980	802

## 현황

- 사업내용: 동물복지축산인증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규 인증신청 농가 및 기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소비자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축산물의 홍보 등을 지원함.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사업으로,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는 `20년~`22년 1,095백만 원으로 동일하나, `23년 980만 원, `24년 802만 원으로 점차 감소세

## 문제점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추이를 보면, 산란계와 육계, 젓소, 한우는 인증농장 수가 점차 증가세임. 반면 염소, 오리의 경우 각각 `15년, `16년 인증기준 마련됐으나, 실제 인증받은 농가는 한 곳도 없음.

<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실적(단위: 개소)

연도	2020	2021	2022	2023
산란계	168	190	223	233
육계	97	131	145	148
양돈	19	16	18	20
젓소	13	26	31	31
한우	-	1	6	6
누계	297	364	423	438

-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64조(인증농장에 대한 지원 등)는 인증농장의 생산물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자문 및 판촉, 그 밖의 인증농장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추가 지원토록 하는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24년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축소됨.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23년 3월 16일 공개한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자의 70.7%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91.6%가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 구매를 위해 추가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함. 반면 양돈농가의 경우 동물복지농장 전환에 있어 어려움으로 초기비용 부담(75.3%), 판매처 확보 어려움(32.1%) 등을 들어 판로 확보와 함께 농가 시설전환 지원 필요.

## 의견: 대폭 증액, 장기적인 예산 투입 필요

- 동물복지와 동물권에 대한 시민 인식 향상과 요구에 맞춰 축산농가의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폭적 지원, 동물복지인증 컨설팅 비용 및 홍보,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 예산 전년수준 유지 필요.

# 농장동물 전염병 최선의 대응은 '예방'!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가축방역대응지원

##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b>가축방역대응지원</b>	111,614	128,741	99,463	97,789	96,433
· 긴급방역비	3,983[3,983]	4,000	4,000		4,000
· 공중방역수의사 직무교육 등	45[45]	61	61		53
· 수의사 연수교육 등	2,010[1,748]	3,458	3,458		-
· 예방약품 등 지원	81,179[75,177]	77,124	77,124		78,630
· 방역장비 등 지원	13,934[5,891]	9,785	9,785		8,555
· 소독자원 지원	10,303[10,299]	5,035	5,035		5,195

- 사업내용: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긴급방역비, △공중방역수의사 직무교육 등, △예방약품 등 지원, △방역장비 등 지원, △소독자원 지원으로 이루어짐

## 문제점

- 2024년도 가축방역대응지원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예방약품 등 지원'으로 총예산의 약 80%를 차지함. 구제역과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해 결과적으로 대규모 살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시기에 따라 정확한 접종이 요구됨. 그러나 2023년 5월 국내에서 4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며 방역 소홀이 문제로 지적됨
- 거의 매년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백신 도입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음

-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축매몰(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277명 중 83.7%가 살처분 작업의 노동 강도가 힘들거나 매우 힘든 수준이라 답했으며, 살처분 이후 작업과 관련된 정신적, 육체적 치료나 상담이 있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0.2%였음.<sup>25</sup> 수천만 마리 동물이 살처분 당하는 현장에서 함께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심리 치료비 지원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현재 20명분에 불과함

## 의견: 3,030백만원 증액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동물과 농가, 살처분 참여자의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전년 수준 예산 편성 필요

25 국가인권위원회, 2018년 2월 26일, “가축매몰(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

# 살처분은 정답이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살처분보상금

##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살처분보상금	74,389	50,215	50,215	100,215	100,215

- 사업내용: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 및 오염 물건의 살처분(폐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주목적으로 △살처분 보상금, △기립불능 가축 폐기 보상금, △폐업지원금 등으로 이뤄져 있음

## 문제점

-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근거한 살처분 제도는 살처분 결정 및 집 행상의 문제, 살처분 참여자에게 미치는 피해의 심각성,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 2차 환경오염문제, 방역을 위한 예산 및 자원 배분 등에 있어서의 왜곡 발생, 농촌지역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영향 등이 문제로 제기됨.<sup>26</sup> 무엇보다 농가와 농장동물이 입는 피해가 심각함
- 정밀한 역학조사 없이 과도하게 추진된 예방적 살처분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2018년 국내 ASF 발생 초기 김포, 파주, 연천의 행정구역 내 모든 돼지를 예방적으로 살처분하였고 2020~2021년 AI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3km로 광범위하게 고수하며 지급된 보상금은 예산액 기준 2020년 75,000백만 원, 2021년 59,930백만 원으로 상당하나 2022년 55,795백만 원, 2023년 50,215백만 원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음. 반면 2024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배가량 증액돼 살처분 보상금의 연도별 실질행 내역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공장식 축산 시스템 아래 바이러스 변이 가능성이나 가축전염병 발생 시 대규모 살처분 한계는 여전히 정부의 전향적이고 장기적인 관련 정책 마련 필요

26 함태성, 2019, 우리나라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 살처분 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2(1), 535-539

## 의견: 전년도 수준으로 삭감 필요

- 가축전염병에 대한 사전예방적·과학적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예산을 늘리고 과도한 살처분으로 인한 보상금은 줄여나가야 할 것

# 국제경쟁력 확보하려면 원유소비 대신 비건소비로 전환해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FTA기금, 원유소비활성화

##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원유소비활성화	9,000	9,000	9,000	9,000	7,000

- 사업내용: 국산 원유를 사용한 치즈 등 유제품 생산 활성화로 FTA확대 등 개방화에 따른 국내 원유 수급 안정, 국산 유제품 생산 사업의 육성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100% 용자 지원 사업

## 문제점

- 1인당 음용유(우유) 소비량은 2001년 36.6kg에서 2021년 31.9kg으로 감소했지만 치즈, 발효유, 버터 등 가공 유제품 1인당 소비량은 2001년 63.9kg에서 86.1kg으로 증가함. 증가하는 가공 유제품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유제품 수입량은 2001년 65만 톤에서 2021년 251만 톤으로 4배 가까이 급증하였는데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치즈나 버터 등 유가공품 생산에 불리한 국내 낙농업 특징에 있음
- 이에 정부가 올해 1월 치즈와 버터 등 유담백 함량이 높은 저지(Jersey)소 수정란을 미국으로부터 도입하여 국내산 원유를 이용한 유가공품 생산, 확대 계획을 발표함. 해외 유제품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래종을 유입, 사육한다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올바른 방안인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채식 인구는 약 250만 명(21년 기준)으로 비건 식품 소비가 꾸준히 늘면서 대체유제품 시장이 큰 EU와의 FTA 체결로 경쟁력에 도전받는 가운데 원유소비활성화 사업 자체에 대한 재고와 추세에 따른 전략 변화가 불가피함<sup>27</sup>

27 대체유제품 선두국가 독일의 경우 `21년 기준 902백만 달러로 한화 1조원 수준의 규모. “유럽 비건 시장의 현황 및 한국 식품 진출전략”,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파리지사, 2022.08

- 사업평가 면에서 2020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는 미흡(78.4)으로 나오면서 예산의 10% 감액 결과가 제시되었다는 것은 사업 집행률뿐 아니라 실효성 측면에서 미흡한 사업이라는 평가로 볼 수 있음. 그간 90~100억 원에 달하는 나라 재정이 투입된 본 사업 자체의 전환이 요구됨

## 의견: 유지 또는 감액

- 70억 원 예산 유지하면서 대체유제품 생산 목적으로 제품 개발 및 R&D 비용에 포션을 늘리거나 기존 원유소비활성화 사업을 전면 재고하면서 공격적 감액이 요구됨

# 동물복지농장에 시설지원 비율 50% 이상 편성하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FTA기금, 축사시설현대화

##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축사시설현대화	170,949	148,525	148,525	165,173	139,643
민간경상보조	6,246	6,981	6,981	9,787	6,716
자치단체자본보조	51,136	42,817	42,817	34,957	32,932
기타민간융자금	113,567	98,727	98,727	120,429	99,995

- 사업내용: △축사시설 현대화,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지원 사업을 주축으로 하며 국가보조 30~100%, 융자 30~80% 지원하는 사업.

## 문제점

- 축사시설 개선 사업은 대체로 사료 자동 급이기, 음수 관리기 등 “생산성 향상” 중심의 장비 보급이라는 점에서 악취 저감, 질병 예방 등과 연계가 부족함.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악취의 주된 원인 통계에서 ‘축사’가 전체의 55%를 차지함.(22년 기준) 또한 ICT 장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현실에 고도의 기술을 지닌 노하우와 지식을 전수할 컨설턴트 인력풀이 협소하고 컨설팅 자체도 장비 소개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
- 정부는 축산업에도 동물복지 강화를 표명함에도 공장식 관행 축산 형태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관행 축산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시설 지원이 본 사업을 통해 주되게 이루어짐
- 정부는 <’20~’24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동물복지 기준에 따른 사양방식, 축사 시스템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22년 기준으로 지자체 보조로 511억 원 이상, 민간융자금으로 1천 130억 원 이상이 투입되었으나 동물복지 측면의 개선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등 그 결과가 전혀 드러나지 않음
- 주요 외부지적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거나 감축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음. 가축사육 환

경을 개선하는 목적이 안전, 환경, 질병 예방뿐만 아니라 동물 복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방식을 전면 전환해야 함

## 의견: 유지

- 내역사업 별 지원대상 농장에서 동물복지농장 비중을 늘리고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축산농가들의 동물복지농장 전환율을 높이는 유인책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무용론 고조되는 정부의 우유급식 대폭 감액하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실, 축산발전기금, 축산물수급관리

##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결산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축산물수급관리(보조)	103,774	93,920	96,043	117,147	101,949

- 사업내용: 축산발전기금 사업으로 △축산물수급관리(보조),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낙농통계관리시스템운영, △학교우유급식, △계란유통센터시설현대화, △비육용암소시장육성, △가축사육제한보상금지원 등 지원

## 문제점

- 우유급식 학생수는 2012년 3,538천 명에서 2022년 1,541천 명으로 2배 이상 감소하였고, 학교별 비율로 초등학교는 82.2%(`12)에서 38.3%(`22), 중학교는 34.3%(`12)에서 20.3%(`22), 고등학교는 23.6%(`12)에서 17.4%(`22)로 감소했음<sup>28</sup>
- 내역사업 별로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학교 우유급식 사업의 포선이 가장 큼

28 학교우유급식정보시스템

<표 2> 축산물수급관리 내역사업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금액 (2024계획안)	지원비율(%)
낙농통계관리시스템	보조	낙농진흥회	600	100%
축산물수급안정(경상)	보조	낙농진흥회	43,257	100%
	보조	농협경제제주	200	100%
축산물수급안정(위탁)	위탁	농협, aT	200	100%
생계 및 소득안정	보조	지자체	1,100	70%
<b>학교우유급식</b>	<b>보조</b>	<b>지자체</b>	<b>46,508</b>	<b>60%</b>
계란유통센터 시설현대화	보조	지자체, 농업법인	4,456	30~100%
비육용암소시장육성	보조	지자체	1,200	30%
가축사육제한보상지원금	보조	지자체	4,628	50%

- 학교 현장에서 학생수 감소와 더불어 우유를 마시지 않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교사, 영양사 등이 본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여전히 강제적으로 우유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우유 생산 과정에서 벌어지는 젖소의 반복적인 강제 수정, 임신, 출산 등 비 인도적 방식에 대한 사회 반감이 고조되고 있고, 아몬드, 귀리 등을 이용한 대체식품 소비가 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며 정부의 우유급식 제도와 관련 사업을 재고해야 함

## 의견: 감액

- 본 사업의 학교우유급식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함은 물론 정부의 우유급식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촉구함

# 예의주시해야 할 반려동물 인프라의 시작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반려동물산업육성

##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반려동물산업육성	-	400	-	5,250	3,810

- 사업내용: 2023년 신설된 사업으로 「수의사법」과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반려동물산업육성,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운영, △반려견 기질평가·행동지도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함

## 문제점

- 반려동물산업육성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 중 '반려견 기질평가·행동지도 인프라 구축'의 경우 증가세인 맹견 사육인구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으로 신규 도입되는 반려견 기질평가·행동지도 제도 안착을 위한 사업임. 맹견의 위험성 및 물림 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작용하는 제도인 만큼 관련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목적의 적극적인 정부발 홍보가 필요함
- 도입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및 동물보건인력 자격 제도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맹견관리, 동물의료체계 등 반려동물 정책의 완결성을 높여야 할 것

## 의견: 유지

#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 확대로 유기·유실견 발생 방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동물복지·안전  
관리 강화지원

##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동물복지· 안전관리강화지원	11,020	12,328	12,328	12,742	12,742

- 사업내용: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사업으로 교육과 홍보를 통한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유실·유기동물 보호 관리 제고,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동물복지 정책 마련 등을 통한 동물복지 전반의 사회 문화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음

## 문제점

	2022					2023('23.7월말)							2024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이월액제외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 (합계)	11,020	11,020	9,592 (8,162)	-	1,428	12,328	12,328	6,362 (1,117)	12,328	6,362 (4,467)	-	-	12,742
· 반려동물문화 국민인식개선	2,711	2,711	2,711 (2,706)	-	-	3,318	3,318	1,117 (1,117)	3,318	1,117 (1,117)	-	-	2,366
· 동물보호관리 시설환경개선	1,800	1,800	372 (163)	-	1,428	1,800	1,800	144 (-)	1,800	144 (-)	-	-	2,160
· 유실유기동물관리 수준개선지원	1,589	1,589	1,589 [1,257]	-	-	1,650	1,650	1,155 (764)	1,650	1,155 (764)	-	-	1,650
· 길고양이중성화 수술지원	3,420	3,420	3,420 [3,135]	-	-	3,820	3,820	2,674 (2,035)	3,820	2,674 (2,035)	-	-	4,742
· 실외사육견중성화 수술지원	1,500	1,500	1,500 [943]	-	-	1,560	1,560	1,092 (551)	1,560	1,092 (551)	-	-	1,404
·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지원	-	-	-	-	-	180	180	180 (-)	180	180 (-)	-	-	420

- 전년도에 비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이 고양이 군집에 대한 고강도의 TNR 시행 필요성을 반영하여 922백원 증액된 반면, ‘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 지원’은 156백원 감액되었음. 소위 마당개들이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한 채 자건을 번식할 경우 유기·유실견 내지 들개화 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큼
- ‘반려동물문화 국민인식개선’의 경우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을 보면 교육부문에서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예산을 감액했으나, 이는 지자체 간 동물복지인식 및 동물관련 업무 수행능력의 편차가 큰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됨. 담당 공무원 인력 부족과 전문성 결여를 고려해, 정책적 노력 강화와 함께 교육 예산 증액을 통한 교육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 필요함.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여 변화되는 동물복지 정책 및 인식 개선에 발맞출 필요 있음

## 의견: 1,108백만원 증액

- 감액된 사업들에 대한 전년도 수준 예산 편성 필요



# IV 제언 - 동물복지를 위한 나라예산, 이렇게 써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및 농장동물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이 나 식품산업 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 등이 주된 임무인 한계로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체계 확보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현실이 사업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 관련 사업들은 축산업 하의 농장동물 사업과 반려동물 사업 두 축으로 나눌 수 있다. 농장동물의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 살처분 등 처리와 축산물 수급 관리 등에 관한 사무와 반려동물의 경우 유기동물보호소, 반려동물 관련 홍보, 교육, 중성화 지원 사업 등으로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다.

축산업 관점에서 농장동물은 '축산물'로서의 대상으로 접근하여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소, 돼지, 닭, 오리 등 농장동물의 "생산성" 증대가 일차적인 목표이며 그에 따라 기존 공장식 밀집사육 형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나마 이들의 복지 증진 관점에서 수립된 사업은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활성화" 사업이 유일하나 지난 2021년~2022년은 10억이 조금 넘는 예산이 편성되었고 2023년 예산은 9억 대로 감액되었다. 2023년 기준 동물복지 농장수는 관행적인 공장식 축산농장 규모의 1%도 못 미치고 있어 동물복지농장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빈약함을 반증한다.

공장식 축산농장의 형태는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파급력이 상당한바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 및 살처분 등 행정적 관리 차원의 예산은 동물복지농장 지원 예산보다 압도적인 수준으로 편성되었다. 가축백신지원 예산은 지난 3년간 490억 원에서 530억 원에 이르고, 가축방역 예산은 990억 원에서 1,000억 원, 살처분 보상은 500억 원에서 590억 원 사이에 이른다. 정부는 '20~'24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동물복지 기준에 따른 사양 방식, 축사 시스템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에 지자체 보조금으로 511억 원 이상, 민간 대상 용자로 1,130억 원 이상을 편성했으나 실제 동물복지 측면의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결과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가축방역> 사업에서 ASF 전용 중대동물 차폐 실험실 건립을 통한 전염병 추이 모니터링 및 ASF 백신 개발 등의 방역 인프라 마련과 같은 기존의 사업 목적 외에도 실험시설 내 동물 사육실 건립 시 상대적으로 도외시되는 실험동물의 복지를 고려한 설계 및 이에 대한 별도 예산 편성, 증액이 요구되는 등 각 사업별 동물의 복지 기준 마련과 개선에 초점을 맞춘 신규 내역사업의 추가 편성과 이에 따른 예산 증액이 전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원유소비활성화> 사업의 경우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 낙농분야 피해대책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현재 국내 1인당 음용유 소비량은 감소, 유가공품 소비량은 증가 추세로, 원유 수입량은 지난 20년간 4배가량 증가했다. 수입산 원유 수급은 계속 늘리면서, 국내산 원유는 소비 감소에 대응하지 못하고 지원사업으로 손실을 충당하고 있는 형국으로, 국내 낙농업에서 주로 사육하는 홀스타인종 원유는 유가공품 생산에 불리하고 수입산 원유에 비해 단가가 높아 경쟁력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 없이는 실효성이 미흡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도 '20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가 미흡(78.4)으로 나옴에 따라 예산의 10% 감액 주문이 이뤄졌다는 것은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 사업의 경우 농장동물과 반려동물 모두에 속하지 않는 성격의 사업이나 그 목적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포획시설 지원이라는 점에서 생물 다양성 보전의 측면보다는 산업 경쟁력 유지와 농가 생계 안정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의 유일한 성과 지표로 제시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두수는 유해야생동물의 종, 개체군, 개체군의 서식 환경 및 인접 농가와와의 관계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순 지표로, 농가의 작물 피해방지라는 본래의 목적을 실효성 있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해지역별 유해야생동물 분포종, 밀집도, 서식지 현황과 피해작물의 종류와 규모 등의 지표가 측정되고 성과로서 제시되어야 한다.

생태계 안에서 야생동물의 종별 역할과 특성, 서식지 결합 및 상충에 대한 이해와 고려 없이 피해 발생 사실에 따른 수동적인 사업 편성으로 판단되며, 이 역시 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고려가 없는 농업이라는 산업적 측면에서의 일방적인 접근의 결과이며 추가 연구 예산 책정과 포획·살처분보다는 예방책 중심의 사업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동물복지·안전관리강화지원>(구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의 경우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따른 수요 및 사회적 관심도의 증가에 따라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교육 및 대책 마련,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육성, 주요 반려동물인 개, 고양이 양육 가구 증가 추세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유기·유실동물, 길고양이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 민간 보호시설 확충 및 관리 개선, 중성화 수술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증가하는 유기·유실동물을 직접 수용하는 보호시설의 확충 및 지원 확대를 통해 물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관리 개선을 통해 복지증진을 꾀한다는 점,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을 통한 개체수 조절로 생태계 보전의 관점을 도심 생태계로 확장하고, 전반적인 동물복지 증진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선진화 추세에 발맞춘 신규 제도에 대응하는 반려동물산업 직업군 양성 체계 확립의 측면에서 반려동물 복지의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의 사업 달성도가 100%를 초과한다는 사실과 지자체 유기·유실동물 보호소의 안락사 집행률 등을 지표로 했을 때 현재 책정한 예산 규모로는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어 전향적인 예산 증액이 요구된다. 또한 유기·유실동물과 야생화된 반려견(들개) 문제의 근본적인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사실상의 관리 공백 속에서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반려동물 생산업과 판매업에 대한 관리 방안과 이에 대한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와 고양이 개체별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중성화 수술 사업은 현재 전반적으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수요에 대한 지자체별 편차가 커 사업에 대한 담당 공무원 및 케어테이커 대상 교육과 대시민 홍보를 확대하고 개체수 조절이라는 목적 달

성의 실효성을 위해 중성화 수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3년도 예산은 유지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으나 예산 증액 및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게다가 경주마 및 승용마 등 말산업 지원사업 역시 말 복지를 위한 사업은 미미한 수준이다. 전체 170억 원에 달하는 예산 중에서 퇴역한 경주마 활용 사업은 고작 6.54%에 달하고 이마저도 퇴역 경주마 보호 및 복지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농장동물에 가하는 비윤리적 사육환경, 반려동물의 유기, 이력을 알 수 없는 퇴역 경주마의 열악한 현실 등 단순한 보호를 넘어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아지고 과거를 고수하는 동물 “이용” 사업에 개선이 요구됨에도 여전히 정부의 의지는 미약하여 정부 사업에도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동물복지 증진이라는 명제에 대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이 정부 사업에 반영되고 예산에도 편성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 예산은 반려동물과 산업동물로 양분되어 상이하게 접근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복지를 논하기 시작했으나 보다 심도있고 비중있는 고찰이 필요해 보이고, 농장동물 역시 축산물이 아닌 지각력 있는 생명으로서 그들의 복지에 대한 고려를 시작해야 한다. 반려동물과 산업동물 간의 인식 차를 좁히면서 동물의 복지 증진을 꾀하는 사업이 보다 확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조 전환이 불가피하다. 농업인의 안정성과 동물복지를 모두 확보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행보가 더욱 요구된다.

**발행일** 2024년 1월 26일  
**발행처** (사)동물권행동 카라  
**집필자** 유지우, 최인수, 조현정, 신주운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기획팀  
**검수자** 김수나 책임연구원 | 나라살림연구소

**웹사이트** www.ekara.org  
**주소**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122  
**전화** 02-3482-0999  
**팩스** 02-3482-8835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001-646488  
**예금주** (사)동물권행동 카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 관련 사업 예산 분석 리포트  
대한민국 동물복지 사업과 예산 현주소